

학생생활관 의무식 ‘총량제 선택식’ 으로 바뀔까?

55.2% ‘총량제 선택식’ 선호… 32.6% ‘조식식’

지난 22일부터 입주학생 1202명 설문조사 응답

전국적으로 논란이 됐던 학생생활관 의무식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학생생활관이 입주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정한 금액만큼만 식사를 할 수 있는 ‘총량제 선택식’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2일부터 12일간 학생생활관 2학기 입주학생 1202명을 대상으로 한 ‘학생생활관 의무식 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 조사’에서 55.2%(320명)의 학생들이 의무식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총량제 선택식’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보였다. ‘총량제 선택식’은 학생들이 일정 금액을 충전하는 방식 등을 통해 식권을 미리 구매해 충전 금액만큼만 식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다음으로 32.6%(189명)가 아침식사를 의무식으로 하는 ‘조식식 선택식’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응답했다. 평일은 자율적으로 식사하고, 주말과 공휴일만 학생생활관에서 식사할 수 있는 ‘주말 선택식’은 7.6%만이 선택했다.

의무식 제도 존폐 여부에 대한 학생생활관 입주학생들의 의견조사에서는 ‘제도개선 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45.3%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37.9%를 차지했다. 그 외에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가 9%로 뒤를 이었다.

이 질문에 남학생, 여학생 모두 ‘제도개선 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그 중 남학

생 43.1%가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했다. 반면 여학생의 경우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29.5%에 그쳤다.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여학생의 경우 11.2%로 나타나 남학생(7.6%)보다 높았다.

또 학생생활관 의무식 제도 만족도 조사에서 ‘매우 만족’ 또는 ‘만족’이 전체의 47.4%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통’이라는 의견은 32.2%, ‘불만족’ 또는 ‘매우 불만족’은 20.4%를 차지했다.

만족하는 이유로는 ‘규칙적인 식사 제공’이 42%, ‘저렴한 식대’가 41%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식단의 질’(12%), ‘위생상태’(4%)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식사를 하는데에 ‘시간적 제약’을 두고 있는 것이 불만족스럽다는 의견이 전체의 42%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식단의 질 불만족’이 38%로 2위를 차지했다. 그 외에도

‘높은 식대’(2%), ‘위생상태 불만족’(2%) 등이 있었다.

학생생활관 관계자는 “이번 설문조사를 토대로 새롭게 학생들의 의견을 추가해 학생들이 만족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성균관대는 지난 1학기까지 기숙사 학생들에게 월 60식(1식 2500원)을 의무 구입토록 했다. 식비는 매 학기초 일괄 납입하는데, 한 학기 평균 230식에 해당하는 60만 원 정도의 식비를 선납하지 않은 학생은 기숙사 입사 자격을 박탈당했다.

기숙사 입사 자격을 박탈당한 한 입주학생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위와 같은 상황을 신고하면서 조사가 시작됐다. 그 결과 성균관대는 올 2학기부터 강제적인 의무식이 전면적으로 폐지됐다.

이에 따라 제주대 학생생활관도 이에 맞춰 의무식 제도 개편을 추진해 왔다.

김명지 기자

제주유나이티드 구단과 업무협약 체결… 인턴십 채용

‘제주대의 날’ 지정 초청경기
직장체협 프로그램 제공기로

제주대가 지난 25일 서귀포월드컵경기장에서 제주유나이티드와 윈윈(Win-Win)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제주대 개교 60주년과 제주유나이티드 팀창단 30주년을 맞아 추진된 이번 협약은 형식적인 교류가 아닌 상호 협력을 통해 양 기관의 지속적 인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제주유나이티드는 인턴모집시 제주대 졸업생 또는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우선 모집하며 매 시즌 홈경기 일정 중 한 경기를 선택, 제주대의 날로 지정해 재학생 및 졸업생, 교수와 교직원을 초청한다.

제주 유나이티드 구단은 또 축구단



지난 25일 허형진 총장과 변병기 제주유나이티드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양 기관은 인턴십 채용을 주요 내용으로 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운영과 관련해 제주대가 실습 교과목을 개설(교양 포함) 시 협조하기로 약속했다. 또 그 외에도 제주대와 협의해 직장체협 프로그램을 제공기로 했다.

제주대는 학내에 경기 홍보 현수막

과 포스터 등을 캠퍼스에 부착해 구단 제주 유나이티드 브랜드 노출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재학생들이 제주 유나이티드 서포터즈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IT전문가 인력사업단

기업연계 고용예약 지원사업 공고

IT전문가 인력양성사업단(단장 도양호 교수)이 내달 초까지 기업연계 고용예약 지원을 위한 대상 기업을 모집한다.

대상 기업은 내년 1월부터 모두 인턴 5명을 채용할 수 있으며, 사업단은 인턴 지원비 월 50만원씩을 지원한다. 인턴사원은 기업 현장에서 효과적인 현장 업무를 습득할 수 있으며, 기술능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신청은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해 인력양성사업단에 방문 등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10일부터 기말시험 실시

다음달 10일부터 5일간 2012학년도 제2학기 기말시험이 실시된다.

시험일정은 교양, 교직 교과목의 경우 교양강의동 실내게시판 등을 통해 안내하고 전공과목은 각 대학별로 시험 일정을 통보하기로 했다.

“해군기지 사업 정당한가” 교수협 朴·文후보에 질의

<해군기지 공사중단 제주지역 교수협의회>

“탈법·인권유린 자행하는 사업”
25일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

제주해군기지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제주대 교수들이 유력 대선후보에게 질의서를 보내는가 하면, 공사 중단과 예산 삭감 등을 요구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지난 27일 오후 ‘제주해군기지 공사중단 및 재논의를 위한 제주지역교수협의회’는 ‘국민을 기만한 제주해군기지 사업에 대해 박근혜·문재인 두 대선 후보에게 드리는 공개질의서’를 발표했다. 교수협의회는 이 공개질의서를 통해 제주해군기지 사업에 대한 두 후보의 입장을 물었다.

교수협의회는 질의서에서 “2010년부터 2012년 10월까지 650여명을 체포·연행되었고 그 중 22명이 구속되고 480여명이 기소됐다”고 말했다. 또 “은 나라가 대통령을 뽑는 잔치마당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제주 강정에서는 해군기지 공사강행을 둘러싼 공방이 하루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강정에서는 한마디로 초상집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교수협은 이어 “아무리 국가안보와 관련된 국책사업이라 하더라도 정부가 탈법과 인권유린을 자행하며



지난 25일 해군기지 공사중단 교수협의회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이 열린 가운데 이경원(행정학과) 교수가 발언을 하고 있다.

진행되는 사업이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교수협의회는 이에 앞서 지난 25일 성명서를 통해 “김황식 국무총리는 제주도민에게 공개 사과하고 공사추진 결정을 취소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정하나 의원의 ‘민군복합형관광미항루트 입출항 기술검증위원회’ 회의록 공개와 기술검증위원이었던 김길수 교수의 증언에 의해 총리실이 공사추진이 가능한 쪽으로 기술검증위 회의를 유도했음이 드러났다”며 “총리실이 국민을 속이고 공사강행의 거짓근거를 만들어냈다”고 지적했다.

교수협은 이어 “김황식 국무총리는 마땅히 정부가 제주도민을 속이고 강정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의 인권을 유린하며 공사를 강행한 점에 대해 제주도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제주해군기지 공사 중단의 조치를 내려야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2일 이들은 김황식 국무총리에게 짜맞추기 검증에 따른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즉각중단하고 예산을 전액삭감할 것을 요구했다. 또 우근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당당하게 공사 정지 명령을 내릴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명지 기자

총장임용추천위원회 ‘다수 추천자’로 구성

54.6%로 ‘검증위 구성안’ 앞서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제도를 제도개선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교직원들은 각 단과대학의 전임교원 또는 직장협의회에서 다수의 추천을 받은 자로 총장임용추천위원회를 선정하는 방식인 B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처는 지난 23일 오후 1시부터 26일 오후 6시까지 총장임용 선정제도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B안(54.6%)이 A안(45.4%)을 다소 앞질렀다.

투표에는 총 투표권자 855명(교수

559명, 직원 296명) 중 총 611명이 참여했다.

A안은 구성원 비율에 따라 배정된 위원들 각 단과대학 등에서 5년 이상 재직한 교원과 직원을 무작위추첨하고 추가적으로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제도 검증위원회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총장임용추천위원회의 위원은 구성원 비율에 따라 배정된 위원들 각 단과대학 전임교원 중에서 다수의 추천을 받은 자와 직장협의회에서 다수의 추천을 받은자로 선정하고 검증위원회는 구성하지 않게 된다.

김명지 기자

일반대학원 총 110명 지원

간호학과·의학과 지원자 가장 많아

2013학년도 전기 일반대학원 일반전형 지원자를 마감한 결과 석사 과정에 75명, 박사과정 28명, 석·박사 통합과정 7명 등 총 110명이 지원했다.

가장 지원자가 많은 학과는 간호학과와 의학과로 각각 7명으로 나타났다. 입학관리과는 대학원에 지원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공 및 영어고사, 면접고사를 통해 입학생을 선정한다. 필기고사와 면접고사는 내달 14일에 진행된다.

합격자 발표는 내년 1월 9일이다. 문의=입학관리과(064-754-2045)

제주대신문 제60기 수습기자 모집

접수 : 대학일동 (취업전략본부 건물) 3층 언론미디어센터
문의 : 제주대신문 편집국(064-754-2277-9) · 오는 30일까지

2013학년도 전과시행 사전 안내

1. 전과대상

가. 2013학년도 제1학기 2, 3학년 진급예정자와 복학예정자
나. 2013학년도 제1학기 재학 또는 복학예정인 상업교육과 학생

2. 전과구분

가. 모집단위간 전과(이하 “일반전과”라 함)는 학사과정의 제2학년 또는 제3학년 학생이 다른 모집단위로 옮기는 것으로 입학정원(전공 또는 학과별 배정 정원)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허가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사범대학으로의 전과는 모집단위별 재직인원이 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허가한다.

※ 모집단위간 전과는 주간에서 주간으로, 야간에서 야간으로의 전과를 의미함.

나. 모집단위내 전과는 모집단위 내에서 전공 또는 학과간 이동으로 모집단위에서 전공 또는 학과가 배정된 이후, 배정인원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허가하는 것을 말한다.

다. 주·야간 전과는 주간과 야간과정에서 모집단위 정원보다 재적생수가 적은 경우에 한해 제적자수 범위만큼 주간과 야간과정간 전과를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라. 모집단위 폐지에 따른 전과는 2012년 3월에 재학 또는 복학예정인 상업교육과 학생에 대하여 전과의 정원에 관계없이 타 모집단위로의 이동을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단, 의예과, 의학과, 수의예과, 수의학과와 간호학과로의 이동은 허용하지 않는다.)

3. 전과 허용인원

가. 일반전과는 전입과 전출 각각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20% 범위 내이며, 수의예과 및 간호학과는 정원보다 재적생수가 적은 경우에 한하여 정원에 미달된 범위에서 전입 허용
나. 사범대학의 전과는 모집단위별 재직인원이 입학정원의 110%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미달된 범위 내에서 전입 허용
다. 모집단위내 전과는 전공 또는 학과 배정인원의 20% 범위 이내에서 대학별 모집단위의 결정사항에 의함

라. 주·야간 전과는 상정된 여석 인원
- 2013학년도 주·야간 전과 여석 없으므로 신청 불가

4. 전과 제한사항

가. 2학년 일반전과 실시 후 전과 허가인원이 전출정원에 도달한 학과(전공)는 익년도 3학년 전과에 대하여 전과원서를 교부할 수 없음
- 2013학년도 3학년 전과 전출 제한 학과 : 독일학과, 산업응용경제학과, 해양시스템공학과, 환경공학과, 토목공학과, 물리학과, 생물학과, 의류학과, 통신공학과, 전자공학과, 건축학전공
나. 일반학과에서 수의학과, 교육대학으로의 전과할 수 없음
다. 전공을 예약하고 입학한 자는 전과할 수 없음
라. 재학 중의 전과는 1회에 한함

5. 전형방법

무시험 전형으로서 2012학년도 제2학기까지의 학업 성적(계절

학기 성적 포함, 휴학자는 기 이수한 성적)순에 의하여 전형하되, 예·체능계와 사범대학으로 전과를 희망하는 학생인 경우에는 희망 학과별 실기고사·면접을 병행하여 실시함. (상업교육과 학생중 사범대학으로의 전과를 희망하는 학생은 면접고사를 실시하지 않음)

◇ 전출자 제한 (2007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① 전형방법에 의거 선발한 허가예정 인원이 소속 모집단위별(학과 및 전공) 입학정원의 20%이상일 경우에는 각 학과의 전출제한 기준에 의거 제한 함

② 학과의 별도 제한이 없는 경우에는 허가예정자에 대하여 성적에 따른 선발순위로 20%이내까지 합격처리한 후
③ 전입인원에 미달된 인원만큼 미달학과(전공)의 지원자에 대하여 추가 합격처리함

6. 원서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 2013. 1. 15.(화) ~ 1. 17.(목) 소속 학과
나. 원서접수 : 2013. 1. 15.(화) ~ 1. 17.(목) 교무처 학사과
다. 면접·실기고사 : 2013. 1. 18.(금) 오후 (세부일정 별도 공지)

7. 전과 허가

가. 전과 허가자 발표 : 2013. 2. 1.(금)

나. 전과 허가일자 : 2013. 3. 1.(금)

8. 수강신청

전과 허가자는 전과한 학과(전공)의 교과과정에 따라 수강신청 또는 전적학과의 기 수강신청 사항 변경조치

9. 기타사항

가. 전과가 허가되면 취소할 수 없으며, 다만 복학예정자 중 전과가 허가되었으나 수강신청 확인 및 변경기간(2013. 3. 8.)내에 복학을 하지 않은 경우는 전과가 취소됨.

나. 전과로 인하여 차액이 발생하는 등록금은 차액을 징수 또는 반환함

다. 전과가 허가된 학생은 전과한 학과(전공)에서 필요한 졸업학점 및 교과과정 과점별 이수학점을 적용받음. (2009이후 입학자 및 동일학년으로 1학년부터 재학하는 학생은 전과한 학과의 교양이수기준을 적용받음)

라. 전과 이전에 이수한 학점은 졸업학점에 포함되며 기 이수한 교과목 중 전과한 학과의 전공교과목이 있을 경우 전공학점으로 인정함.

2012. 11. 21.

제 주 대 학 교 총 장

http://www.jejunu.ac.kr

690-75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사설

적소성대(積小成大)의 정신이 필요하다

가을걷이한 곡식이나 채소를 식량과 종자로 쓰기 위해 잘 쪼개 건수하는 일을 ‘갈무리’라고 한다. 우리 선조들은 가을에 갈무리한 곡식들을 작은 집 모양의 나락뒤주에 갈무리한 다음에 그 벽에 ‘적소성대(積小成大)’라는 글을 써 붙였다. 이 말은 ‘티끌 모아 태산(積土成山)’과 같은 뜻으로, ‘끝맺음’의 시기와 사건에만 주목하지 말고 그 다음 순간에 새로 시작함을 내다보고 준비하라는 교훈적 의미를 담고 있다.

우리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그 끝이 있는 까닭에 또한 시작이 있다는 순환론적 시간관념을 가지고 있어서 갈무리의 이러한 교훈적 의미를 잘 안다. 하지만 서구의 생활양식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살아가는 탓에 정작 현실에서는 그것을 잊고 산다. 그러다보니 허위허위 서둘러 어떻게든 끝맺으려고 하거나, 이와는 반대로 그럴싸하게 끝맺지 못한 것을 후회하기도 한다. 그런데 어느 쪽이 되었건 괴롭기는 마찬가지다.

올해의 처음에 우리는 종합대학 승격 30주년과 개교 60주년을 맞이했다는 기대감으로 많은 일을 계획했고, 그만큼 많은 행사를 치렀다. 다들 알고 있는 일이었지만, 1월 2일 ‘개교 60주년 기념의 해’ 선포식을 필두로 하여 60년사 편찬과 문화교류관 개관을 비롯한 기관별 각종 학술대회와 행사가 줄을 이었다. 돌아해보면 ‘작지만 강한 대학’을 표방하는 우리대

학의 실정으로서의 얼마 전 ‘교육역량강화지원사업 우수대학 선정’에서도 드러나듯이 한 해 동안 힘에 부칠 정도로 많은 일을 해온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는 갈무리를 위한 냉정한 평가와 반성이 필요하다. ‘꿈을 키운 60년, 빛이 되어 세계로’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많은 행사들을 치르면서 우리는 교내외로부터 ‘자축을 위한 집안 잔치로는 손색이 없겠지만 지역 거점대학으로서 도민사회와 어떤 교감을 나누었는지’, 그리고 ‘학내 구성원들의 내실 있는 소통과 협력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전국 20위권 명문대학을 위한 제2중흥의 선포에 부합하는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라는 질문을 받아왔다. 그리고 그때마다 학내의 교육환경의 급변에 따른 경쟁논리로 답변해왔다.

끝맺음에 의미를 두는 사람은 과정보다는 성과에 매달린다. 갈무리에 의미를 두는 사람은 설명 많이 거둬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을 되돌아보는 반성의 시간에 초점을 맞춘다. 개교 60주년을 맞이해 벌여 놓았던 여러 행사도, 어느 때보다도 이르게 시작했던 2학기도 이제 갈무리할 때가 되었다. 아름다운 퇴장은 그렇게 나버린 결론에서가 아니라, 그것 또한 과정이라는 점을 인식할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적소성대의 정신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보면 좋겠다.

대학에 4·3연구 기관을 설립하자

‘제주4·3연구대계 수립을 위한 학술세미나’가 지난 23일 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 주최로 국제교류회관에서 열렸다. 이 학술세미나에서는 ‘제주4·3 역사자료의 수집현황과 과제’, ‘4·3문학 연구의 현황과 과제’, ‘4·3사건의 국제정치적 배경’, ‘제주4·3사건의 전개과정에 관한 체계론적 접근’, ‘4·3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조건과 과제’ 등 5건의 주제발표가 있었으며, 활발한 토론도 진행됐다.

그동안 제주4·3사건(이하 4·3) 관련 학술행사가 국내외에서 수차례 열린 바 있지만, 이번 행사의 경우 두 가지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 하나는 우리대학교 부설 연구소가 단독으로 주최하는 4·3 학술행사라는 점이며, 다른 하나는 주제발표자 모두가 우리대학교 교수라는 점이다. 물론 평화연구소의 4·3 학술행사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것이어서 그렇다고 치더라도, 발표자 모두가 우리대학교 교수었다는 점은 매우 주목할 부분이라고 본다.

사실 4·3은 우리 현대사에서 한국전쟁을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인명이 희생된 사건으로, 제주는 물론 한국을 넘어 국제사회의 중요한 이슈로 다뤄지고 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제주지역 거점대학인 우리대학교에서는 4·3에 대해 연구와 교육의 책임을 다하지 못해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4·3 관련 수업은 사이버 강좌로만 개설해 있으며, 4·3을 전문적으로

조사하거나 연구하는 기관도 없다. 4·3을 전공한 전임교수도 채용하지 못했다. 그래서 직무유기라거나 책임을 방기한다는 질타를 많이 받아왔다. 이번 행사를 후원한 제주4·3평화재단의 김영훈 이사장은 격려사를 통해 “제주도에 기반을 둔 제주대학교는 제대로 된 4·3 수집조차 마련치 않았다는 안팎의 비판에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따끔한 지적을 하기도 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번 행사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중요한 과제를 남겼다고 하겠다. 그것은 바로 우리대학교에 4·3 관련 연구기관을 설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남대학교의 경우 이미 1996년에 5·18연구소 설립하여 국제학술대회 개최, 연구논문집·연구총서·자료집·교재 발간, 기념관 운영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그 책무를 다하고 있음을 우리가 귀감으로 삼아야 한다. ‘4·3연구소’라고 하는 ‘4·3연구센터’라고 하는, 4·3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 설립을 통해 4·3 관련 전임교수와 인력을 채용하고, 책임 있는 조사·연구·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제주4·3평화재단이나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적 지원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만시지탄은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4·3 연구기관 설립 작업을 시작하자. 더 이상 우리대학교의 시대적·사회적 소임을 저버려선 안 된다.

“4·3 국내외 역사자료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해야”

‘4·3연구대계 수립’ 세미나 개최
김동전 교수, ‘4·3자료현황’ 발표

제주 4·3에 대한 국내외 자료를 보다 더 체계적으로 수집,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23일 오후 2시부터 국제교류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제주4·3연구대계 수립을 위한 학술세미나’에서 김동전(사학과) 교수는 “제주 4·3 역사자료의 수집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동전 교수는 과제와 제언에서 “해방 후 미군정기의 역사기록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자료에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면서 “이 시기 국내 자료를 포함해 국외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미국 국립기록관리청 소장 기록은 한국의 정책 결정과정은 물론, 정치, 경제, 사회구조를 구체적으로 해명하는데 필수적인 자료”라며 “그러나 미국이 중요한 기록의 공개를 원치 않아 비공개 기록의 자료 목록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한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대한민국 정부 경찰당국 등의 기록문서에 대한 체계적인

기록자료의 수집이 진행돼야 한다”면서 “하루가 다르게 4·3자료들이 사라지고 있거나 의도적인 폐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날 발표에서 구술기록은 역사연구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증언채록 작업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 김 교수는 “제주 4·3과 같은 한국 현대사에서 구술기록은 기록자료와 함께 누락됐거나 불충분하게 기록된 역사적 사실을 보완해 준다”면서 “4·3을 경험했거나 기억하고 있는 생존자들의 수가 해를 거듭할수록 줄어 들고 있으므로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인력을 지원해 구술기록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기념관 산하에 제주4·3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 정리, 연구, 기록보존 등을 담당할 ‘기록보존실’(가칭) 등의 전담부서나 기구를 둘 것을 주문했다. 또 구술기록자료 등의 보존과 활용을 위해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방안과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동전 교수는 제주4·3위원회 자료수집 현황과 제주4·3구술자료의 증언채록 현황 등에 대해 소개하기도 했다.

발표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조성운(사회학과) 교수는 “제주4·3 관



지난 23일 열린 세미나에서 고성준(평화연구소) 소장의 사회로 김동전 교수(맨 오른쪽)가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은 토론자로 나선 조성운(사회학과) 교수.

련 연구자들이 서로 협력하고 4·3관련 자료들을 한데 모으는 등의 노력을 통해 4·3에 대한 연구의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평화연구소가 주최하고 제주4·3평화재단이 후원한 이번 세미나는 제1세션과 제2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제1세션에서는 고성준(평화연구소장 윤리교육과)교수의 사회로 김동전 교수의 발표에 이어 ‘4·3문학 연구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김동운(국어국문학과) 교수의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 현승환(국어교육과) 교수가 토론자로 나섰다.

제2세션에서는 장원석(정치외교학과) 교수의 사회로 강근형(정치외

교학과·사회과학대학 학장) 교수와 강병철(제주인뉴스) 대표가 ‘4·3사건의 국제정치적 배경’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변종현(초등교육과 윤리교육전공) 교수가 ‘제주4·3사건의 전개 과정에 관한 체계론적 접근’에 대해 발표를 진행했다. 마지막으로 ‘4·3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조건과 과제’에 대해 고정민 교수가 발표를 했다.

제2세션에서는 김진호(정치외교학과) 교수, 허호준·박찬식(평화연구소) 특별연구원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김명지 기자

조준범씨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4년 연속 고시 합격자 배출
제주대 2년 연속 사시 합격

조준범(2011년 정치외교학과 졸업, 사진) 동문이 지난 22일 발표된 제54회 사법시험에서 최종 합격했다.

조 동문의 이번 합격으로 제주대는 지난해 강경민(2010년 법학부 졸업) 동문에 이어 2년 연속 사법시험 합격자를 배출했다.

조 동문은 “법관이 되고 싶어 학교를 다닐때는 법학을 복수전공하면서 사법시험을 준비하게 됐다”며 “존경받는 법조인이 되기 위해 겸손한 마음으로 부단한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나뿐인 자식을 위해 항상 믿어주고 응원해주며 뒷바라지 하느라 고생하신 어머니, 늘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주신 민기 고시반 지도교수님과 정치외교학과 교수님들께 감사드립니다”고 소감을 밝혔다.

제주대는 2009년 외무고시에 합격한 양재벽(정치외교학과 졸업) 동문, 2010년 행정고시에 합격하고 허영지(행정학과 졸업)·조성현(컴퓨터공학과 졸업) 동문에 이어 4년 연속 3대 국가고시 합격자를 내는 쾌거를 이뤘다.

한편 제54회 사법시험 최종 합격자는 502명으로 전년의 707명보다 205명이 줄었다. 합격자를 배출한 대학은 총 41곳이다.

김명지 기자

70대 재일동포 발전기금 쾌척

익명으로 1억5000만원 기부
“제주대 발전이 곧 제주 발전”

본인의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는 제주출신 70대 재일동포가 최근 대학 발전기금으로 1억5000만원을 쾌척했다.

이 독지가는 이번을 포함해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제주대에 발전기금을 전달했다.

그는 “제주 유일의 국립대학인 제주대의 발전은 곧 제주의 발전”이라며 “앞으로도 능력이 닿고 여건이 된

다면 계속해서 사회환원 활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고 제주대는 전했다.

이 독지가는 제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일본으로 건너가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대학을 나와 금융 분야에서 성공을 이뤘다.

그동안 그는 제주 지역 여러 학교에 기금을 쾌척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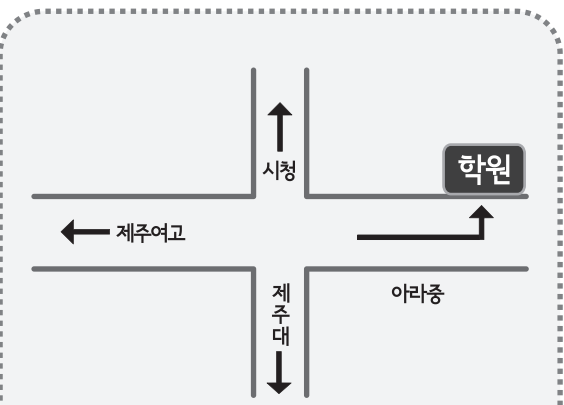
제주대는 성금 기탁자의 뜻에 따라 부채 때문에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대학교병원과 재일본제주대주인센터 운영 등에 사용키로 했다 고 밝혔다.

제주대신문 The Jeju National University Press		
발행인·총장 허향진	편집인·주간 김동윤	편집국장 김명지
우)690-75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하로 102 전화(안내 064)754-2114		
제주대신문 편집국 064)754-2277-9 제주대미디어&JUMP> news.jeju.ac.kr		

운전면허

제주대학교 발전후원업체
한라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

- ▶ 매일 학원 자체 운전면허 시험 실시
- ▶ 제주시 전지역 셔틀 운행 : 제주대→학원 셔틀 운행
- ▶ 주말교육가능
- ▶ 제주여고입구 건너편(다리)←학원셔틀버스 운행



제주시 아라2동 1320(제주여고 입구 동쪽)
☎ 755-9900

♡ Sound Library Open ♡

Open Monday~Friday 9:00am~5:00pm
외국어교육원 (F.L.I) 2층

√ 편안하고 안정된 학습 환경과 시설



√ 멀티미디어 영어 학습 시스템 구축

- ① Speaking 위주 멀티미디어 영어 학습 시스템
- ② English를 English로 학습하는 콘텐츠
- ③ Level Test(초급,중급,고급)를 통한 학습자의 수준 측정
- ④ Listening, Speaking, Reading, Writing 통합 학습
- ⑤ Self Test 제공으로 성취도 확인 가능한 학습
- ⑥ 음성인식 솔루션을 통한 발음교정 가능한 학습



제주대학교 외국어교육원
Foreign Language Institute
☎ (064)754-2291~2292, http://fljeju.ac.kr

제32회 백록학술상 현상 공모

제주대신문이 개교 제60주년과 창간 제58주년을 맞이하여 제32회 백록학술상을 다음과 같이 현상공모합니다.

1. 응모자격 : 제주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부학생
2. 응모분야 : 인문, 사회, 자연과학, 공학분야
3. 유의사항 : A4용지 10~30매 내외(이미 발표된 논문 제외)로 작성하고, 논문 출력물과 논문 파일 CD로 동시 제출할 것. 제출된 원고는 반환 안 됨.
4. 접수마감일시 : 2012년 12월 10일(월) 18:00까지
5. 시상 : 당선 - 총장상 및 상금 50만원
가작 - 총장상 및 상금 30만원
6. 접수장소 : 언론미디어센터 행정실(☎754-2278·취업전략본부 건물 3층)
7. 발표 : 제주대신문 2013년 신년특집호(2013년 1월 1일 발행 예정)

언론미디어센터 제주대신문

하영드리미 모바일 버전 있어도 이용 못해

상용화 들어갔지만…보안문제로 사용 못하고 있어 “최대한 빨리 해결해 학생들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

제주대 애플리케이션이 나온 지 1년이 지났지만 제주대 애플리케이션에서 하영드리미를 누르면 PC버전으로 연동돼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제주대 애플리케이션은 학생들에게 제주대 관련 정보를 모바일 버전으로 볼 수 있게 만든 애플리케이션이다. 학교소개, 학과소개, 학사일정, 식당메뉴 등 재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마련했다.

하지만 제주대 애플리케이션에서 하영드리미 모바일버전이 연동되지 않고 있다. 정보통신원은 지난 10월에 제주대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하면서 함께 하영드리미 모바일버전도 출

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하영드리미 모바일버전이 제주대 애플리케이션과 연동이 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홈페이지 주소를 직접 수기로 입력해야만 들어갈 수 있게 상황이다. 또 북마크나 즐겨찾기를 지정해 놓아도 인증문제로 로그인에 되지 않거나 PC버전으로 모바일웹이 작동됐다.

이렇듯 하영드리미 모바일버전에 쉽게 접속하기 어려워 학생들은 모바일버전이 없는 줄 아는 학생들도 있다. 또한 PC버전의 경우 최적화가 되지 못해 클릭을 하기 어렵거나 뒤로가기를 누르면 다시 로그인을 해야 했다. 이와 함께 성적확인 등의 경우 뒷부분은 잘려서 나올 때도 있다. 현재

수강신청을 하는 것도 불가능한 상태다.

오현민 (인문홍보학과 3)씨는 “하영드리미 모바일버전을 쓸 수 없어 불편하다”며 “제주대 애플리케이션은 나온 지 1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연동이 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보통신원은 보안 문제로 인해 연동이 못했다는 입장이다. 김선희(정보통신원) 학사정보총괄팀장은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면 보안 차원에서 암호화가 적용됐다”며 “KT에서 그 당시 보안 문제로 인해 제주대 애플리케이션과 연동시키기 어려워 PC버전이 열리게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최대한 이른 시간에 이 문제를 해결해 학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하영드리미 모바일웹에 로그인 한 상태.

LINC사업단 캡스톤디자인 결과 발표회 개최

‘A.W.P’ 팀 최우수상 수상 ‘냉온 정수기 자동취수장치’로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최하고, 제주대학교 LINC사업단(단장 이상백)이 주관한 2012 캡스톤디자인 결과 발표회에서 제주대 전자공학과 A.W.P팀(지도교수 강민제)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지난 23일 제주그랜드호텔 컨벤션홀에서 ‘너희는 캡스톤 디자인이니?’ 우리는 캡스톤 육선한다’라는 주제로 열린 발표회는 제주광역경제권 2단계 선도사업인 △플렉스 △정정헬스푸드 △비파향장 △물 △휴양형 MICE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학생과 교수로 구성된 68개팀(지도교수 68명, 참여학생 360명)이 치열한 경

쟁을 벌였다.

‘캡스톤(capstone) 디자인’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이론을 산업 현장에 적용, 창의적인 사고로 해결하는 과정을 말한다. 제주에서 캡스톤 디자인 발표회가 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심사 결과 68개팀 가운데 16개팀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최우수상은 ‘냉온 정수기 자동취수장치’를 주제로 내건 제주대 전자공학과 A.W.P팀(지도교수 강민제)에 돌아갔다.

우수상은 ‘제주의 목축문화를 이용한 문화상품 개발’을 주제로 한 문화조형디자인전공의 토마 팀(지도교수 오창운)과 ‘미세조류로 배양해 만든 바이오매스(BIOMASS)를 사용한 천연 화장품’을 주제로 내세운 지



2012 캡스톤디자인 결과발표회에서 전자공학과 A.W.P 팀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구해양과학과의 green ocean팀(지도교수 이준백)이 각각 차지했다.

최우수상과 우수 팀을 이끈 교수에게는 우수지도 교수상이 전달됐다.

특히 대경엔지니어링 등 도내 12개

기업이 13개팀에 2650만원을 투자하겠다는 계약을 체결, 발표회 자리에 나온 아이디어가 상업화될 기회를 얻게 됐다.

스토리텔링센터, 중국 영화제작사서 작품 의뢰받아

한국 드라마를 새롭게 각색 “제주영상산업의 초석 마련”

스토리텔링 연구개발센터(센터장 양진건 교수)는 최근 중국 최대의 영화투자, 배급, 제작사인 차이나필름 그룹(CFG)으로부터 제작작품 시나리오 의뢰를 받았다.

CFG는 매년 장편영화 30편 이상과 100편 이상의 tele film(텔레비전 영화)을 제작하고 있으며 해외작품의 개봉 또한 차이나필름 그룹의 자사 배급사인 화샤(Huaxia)를 통해 하고 있는 중국 대표 영화사다. 이번에 CFG는 기존에 방영됐던

유명한 한국드라마를 중국 영화로 제작하기로 결정해 제작을 위한 시나리오 초고 작업을 스토리텔링 연구개발센터에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의뢰를 한 것이다.

이 초고를 토대로 중국에서 흥행에 성공했던 영화 <당산대지진>의 작가 소소위가 중국 정부에 맞게 각색을 하면서 최종 시나리오를 완성하면 영화제작에 착수하게 된다.

이 모든 과정은 직접 CFG가 지휘하고 제작, 투자해 영화가 완성되면 중국내에서 배급을 할 예정이다.

이러한 영상스토리텔링 기본 작업이 제주대를 기반으로 이뤄진다는 것은 한중 합작을 기반으로 하는 제

주영상산업의 초석을 마련한다는 점과 제주의 영상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센터 측에서 밝히고 있다.

한편 스토리텔링 연구개발센터가 지난 9월 24일 경남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2 지역발전주간’ 지역발전유공자 시상식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또한 ‘2010 지식경제부 광역경제권연계협력사업’에서 ‘제주배문화의 녹색관광자원화를 위한 스토리텔링 콘텐츠 개발사업’을 수행했다. 또 탐라대전의 메인스토리를 만들어 제주특별자치도에 재능기부를 하기도 했다.

청년창업 한마당 투어 창업지원단 지난 23일 개최

창업지원단이 지난 23일 오전 10시 인문대학 1호관 MICE대강의실에서 ‘창업선도대학 청년창업 한마당 투어’를 개최했다.

창업진흥원이 주관하고 제주대 창업지원단이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청년사관학교 출신의 CEO와 함께 하는 토크쇼 및 창업동아리 아이템 전시, 홍보 등으로 꾸며졌다.

오전 10시 김윤정((주)카본 대표)씨의 사회로 4명의 청년창업자와 함께하는 청년창업 한마당 투어가 진행됐다. 토크쇼는 참석자들의 창업에 대한 자유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이뤄졌다.

중앙도서관 대출 1위 ‘아프니까 청춘이다’

2위는 ‘정의란 무엇인가’ 대출도서 절반이 소설류

올 1월부터 최근까지 제주대 학생들이 중앙도서관(관장 한석지 교수)에서 가장 많이 빌려 읽은 책은 ‘아프니까 청춘이다’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 중앙도서관에서 빌려본 상위 10위권 책의 절반 가까이가 소설류이고, 소설이 상위 10위 중 3위를 비롯해 6~8위를 휩쓸었다.

불안한 미래와 외로운 청춘을 보내고 있는 젊은이들을 위해 김난도 서울대 교수가 집필한 ‘아프니까 청춘이다’는 98회 대출돼 1위를 기록했다.

2위는 49회 대출된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가 차지했다. 샌델 교수의 20여년에 걸친 하버드대 강의록을 바탕으로 한 이 책은 공동체 철학에 입각해 사회적 정의를 사례 중심으로 설명한다. 출간 직후부터 베스트셀러에 올라 출간 11개월 만에 100만부 판매를 넘어서는 등 공정 사회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을 반영하는 ‘정의 신드롬’을 일으켰다. 3위는 47회 대출된 프랑스 작가 기욤 뫼소의 판타지 소설 ‘종이여자’로 드러났다.

공동 4위는 제주대학교 출판부가 펴낸 ‘생명과학 실험서’(44회)와 황정봉 무악학과 교수의 ‘보합학원론’(44회) 등 전공도서

가 차지했다. 10위권 안에 든 도서 가운데는

한국 작가의 소설이 많았다. 6위는 공지영의 ‘도가니(43회)’, 7위는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41회)’, 8위는 현기영의 ‘순이삼촌(38회)’으로 그 뒤를 이었다. 리처드 도킨스의 과학서적 ‘이기적 유전자’가 37회 대출돼 9위에 올랐고, 김여준의 ‘닥치고 정치’와 헤인스님의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각각 36회 대출돼 공동 10위를 차지했다.

허정임 수서정리과 주무관은 “시중의 베스트셀러가 중앙도서관 도서 대출 순위에서도 여전히 인기를 보이고 있다”면서 “비문학 서적이 대출 순위 10위 내에 5권이 포함돼 그동안의 소설, 에세이 편중 현상이 어느 정도는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디아스포라와 재일한국인’ 학술대회 재일제주인센터 내달 8일 문화교류관 시청각실서

재일제주인센터(센터장 이창의 일어일문학과 교수)는 ‘디아스포라와 재일한국인’을 주제로 다음달 8일부터 이틀간 문화교류관 2층 시청각실에서 국제학술대회를 진행한다. 센터 개관을 기념하기 위한 이번 행사에서는 8일 오전 9시 20분 개회식을 진행한 뒤 오전 9시 30분부터 디아스포라를 주제로 윤인진(고려대) 교수, 이마이즈미 유미코(일본 법정부대) 교수 등이 발표한다. 이어 오후 1시 15분부터는 코리안

디아스포라와 재일한국인을 주제로 김현미(연세대) 교수, 조성윤(사회학과) 교수, 엄미경(일반사회교육전공) 교수가 발표한다. 또 오후 3시 30분부터는 재일한국인 문학을 주제로 황봉모(한구외대) 교수, 소명선(일어일문학과) 교수 등이 발표한다. 오후 5시 45분부터 종합토론을 진행한다. 9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올레길 걷기가 진행되고 폐막한다.

제주학회 공동학술대회 30일 개최

‘제주의 사회갈등을 넘어 상생발전 모색’ 주제로

제주학회(회장 김진영 사회학과 교수)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위원장 김승석 변호사)는 오는 30일 오전 9시20분부터 제주상공회의소 국제대회장에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제주의 사회갈등을 넘어 상생발전 모색: 사회갈등 해소와 통합 방안’을 주제로 제주의 사회갈등 해소와 통합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제주사회의 상생발전과 공동체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학회는 최근 제주에서 야기되고 있는 사회갈등에서 합리적인 갈등해소와 통합 방안을 이성적, 객관적으로 모색해보기 위해 기획했다. 또 제주의 공공갈등을 해소하고 사회통합 방안을 강구하는데 학회와 관련 기관 간의 협력 기회를 제고해 제주사회 갈등해소 노력의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제주학 학술상 시상식도 진행된다.

영주어문 학술대회 오는 30일 개최

오후 3시 인문대학 1호관서

영주어문학회(회장 김병택 국어국문학과 교수)는 오는 30일 오후 3시부터 인문대학 1호관 3층 제주문화원형체험관에서 국어문화원(원장 강영봉 교수)과 공동으로 ‘2012 하반기 영주어문 학술대회’를 연다. 학술대회에선 ‘수의적 /i/ 활용화’와 /i/ 활용 첨가에 대한 음성·음운

론적 고찰’ (신우봉·고려대 박사과정 수료), ‘李德懋의 華夷觀 재고찰’ (고은임·서울대 박사과정 수료), ‘1벌들의 교향’ 연구 - 교백과 시선의 양상을 중심으로’ (양철수·제주대 박사과정) 논문발표가 진행된다. 논문발표후 지정 및 종합 토론이 진행된다. 토론에는 제주대 강사인 김미진·김세미오·이성준씨가 참여한다.

평화섬 정책포럼 지난 22일 열려

녹색성장 지역연합 등 주제로

사단법인 세계섬평화회와 제주대학교 세계환경과 섬연구소(소장 고창훈 행정학과 교수)는 22일 오후 4시 법학전문대학원 강당에서 ‘제10차 평화섬 정책포럼’을 열었다. 이번 포럼은 △세계평화회의 섬 협약을 위한 6개국 문화축제 △유네스코 국제보호구역의 녹색성장 지역연합 설립 등을 주제로 열렸다. 행사에선 제주대에서 강의를 하거나 강의를 듣는 외국인도 제주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심으로 의제에 대하여 발제하고 논의했다. 고창훈 교수는 “포럼 결과를 바탕으로 실행 정책에 반영하고자 한다”며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3가지의 제에 대해 예산이 확보되는 오는 12

월 중순에 곧바로 IUCN(국제자연보호연맹)의 홈페이지에 우리의 프로그램을 알리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IUCN의 회원들과 함께 제주특별자치도를 실행함으로써 세계환경을 위협하는 제주섬의 취지를 반영할 뿐더러 지난 6월 ‘리우 G20 정상회의’의 지역단위의 녹색성장 실현정책의 취지도 수렴 실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동기방학 입주학생 모집

학생생활관이 다음달 1일까지 2012학년도 동기방학 특별개관 입주학생을 모집한다. 입주기간은 다음달 15일부터 내년 2월 22일까지이다. 문의=학생생활관(754-2251-2)

사람들

안미정·이용규 교수, 강동희 학생 ‘WISET 멘토링의 날’ 서 수상



안미정 교수



이용규 교수

지난 23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2012 WISET 멘토링의 날’ 행사에서 안미정의학전문대학원 학술연구교수가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상인 약진 멘토상, 최정혜 다음커뮤니케이션 지역협력담당 실장과 이용규(건축학부)교수가 지역인재육성멘토상, 강동희씨(건축학부 3)가 한국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소장상인 멘티 장려상을 수상했다. 이들 수상자들은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연구재단,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제주특별자치도의 후원을 받아 운영돼 온 WISET (Women in Science, Engineering and Technology) 제주지역사업단(사업단장 도양희 교수)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도가

높고 활발한 온·오프라인 멘토링 수행 등에 대한 공헌이 큰 멘토와 멘티들이다.

이번 행사 수상자는 WISET 16개 권역·지역 사업단에서 각각 추천된 후보자는 온·오프라인 멘토링 활동을, 멘토 역량, 멘토링 노하우 축적 정도 및 성과(멘티의 긍정적 변화 정도 등) 등의 다면적인 기준으로 평가해 선정됐다.

한편 올해의 멘토상, 약진 멘토상은 멘토링 우수성과 발굴 및 확산, 멘토링 참여자의 자기전진을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시상하고 있다.

지역인재육성 멘토상은 차세대 여성과학기술 인재 양성과 후원에 대한 기여를 독려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됐다.

김경환 연구원 우수논문상 수상 한국정보처리학회 추계학술대회서

김경환 (과학기술사회연구센터 연구원·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연구원이 지난 26일 국제교류회관에서 한국정보처리학회 주최로 열린 제38회 추계학술발표대회에서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이번에 수상한 논문의 제목은 ‘안드로이드 플

랫폼을 이용한 무선기반 IVEF 프로토타입의 설계 및 구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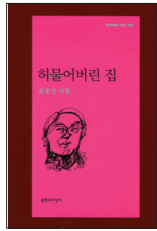
문충성 시집 『허물어버린 집』 문광부 우수도서로 선정돼

문충성 명예교수의 시집 『허물어버린 집』(문학과지성사)이 2012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교양도서로 선정됐다.

이 책의 특이한 점은 제주어로 쓴 책을 표준어로 적어 놓지 않았다는 것이다. 작가는 책을 통해 제주어가 이질적인 언어가 아닌 있는 그대로 독자가 받아들였으면 하는 바람을 표출하고 있다.

특히 이 책은 4·3 사태를 직접 겪은 작가가 4·3 이후의 시대적 배경과 지금까지 4·3의 폐해를 생생하게 묘사했다는 평을 받았다.

한편 문 명예교수는 1977년 계간 『문학과 지성』으로 등단했다.



취업을 **Job**아라

④ 단과대학 취업프로그램

문화콘텐츠·무역전문가 인력양성 과정 등 운영

단과대학의 취업프로그램은 무엇이 있나?

단과대학 취업 프로그램은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단과대학별로 특색 있는 프로그램보다는 그 단과대학 소속 학생들이 취업하려는 방향에 맞춰 묵묵히 지원을 해준다. 동영상 강의 지원, 고시반 지원, 프로그램 참여비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인문대학은 문화콘텐츠 기획홍보 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3년 전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의 지원으로 진행하고 있는 이 사업은 그동안 영상문화 기획, 출판홍보, 기자, 학에서, 사회복지 트랙 등에서 전문인력을 양성해왔다. 그 외에도 각 학과별로 취업특강도 개최하고 있으며 매년 해외나 도외 탐방 연수를 보낸다.

사회과학대학은 영어학습센터를 운영한다. 영어학습센터는 강의실에 원어인 강사를 배치했다. 이 센터에서 열리는 원어인 강의를 행정학과는 2학기씩 필수로 듣는다. 내년부터는 정치외교학과도 필수과목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 공무원 시험, 외무고시 등을 위해 시험대비 비디오 강좌도 구비돼 있다. 이와 함께 '구라도서관', '창의당' 등의 독서실도 운영한다. '구라도서관'에는 자기 개발서, 취업관련 서적 등의 책이 구비돼 있다. 더불어 학과 차원에서 취업캠프, 면접 특강, 동문 및 전문가 초청 강연 등을 진행한다. 이 외에도 공무원 1차 합격시 장학금 지급도 하고 있다.

경상대학은 지식경제부에서 3년동안 지원을 받아 글로벌 무역 전문인력 양성사업단을 지난 7월 1일 출범시켰다. 이 사업을 통해 무역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또한 취업캠프, 도내 중소기업 탐방, 대학창업포럼 방문사업 연수도 보냈다. 아울러 공공부문 취업대비반 지원, 금융 3종 자격증 대비 동영상 수강료 지원사업도 하고 있다. 이와 함

께 공사, 항공사, 다국적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초청해 강연을 진행한다. 학과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다. 관광경영학과 학생들을 위주로 '관광산업 전문성 강화'를 주제로 강사를 초빙해 취업컨설팅을 개최했다. 또 '경제학전공자의 금융업계 취업을 위한 맞춤 전략특강'을 열어 경제학도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다.

사범대학은 모든 학과의 임용고시 과목 중 하나인 교육학을 특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예비 교사들의 교육에 대한 전문성 함양을 위해 '아라교육광장'을 4차례 진행했다. 또한 전국에 있는 교사들을 초청해 타 지역의 임용 현황 및 정보를 제공하는 기회도 가졌다. 더불어 '사범대학 독후감 Contest'를 매년 2회씩 개최해 학생들에게 책읽는 습관과 글쓰기 실력을 증진시키고 있다. 이 외에도 제주교육청과 연계해 정원 유지나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학장들 "취업 위해 영어·자격증 중요

학장들은 '영어'와 '기업체가 원하는 인재상에 맞는 자격증 등을 취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근형 사회과학대학 학장은 "요즘 영어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라며 "외국어교육원 등을 이용하거나 학교에서 보내주는 어학연수 등을 잘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기업에 원하는 자격증은 토익, 자격증 등 기본적인 스펙 외에도 역량과 일을 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김희철 경상대학 학장은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조건, 역량을 모두 갖춰야 한다"며 "이를 위해 끊임 없는 노력을 해야하고 미치지 않는다면 자신의 역량에 맞는 일자리에 취업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기업에서 각 단과대학으로 추천서가 오지 않느냐'는 질문에 김희철 학장은 "추천

취업전략부가 학생들의 취업을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지만 단과대학 차원에서 학생들의 취업을 위해 다채로운 취업전략을 만들고 있다. 단과대학의 취업전략을 알아보기 위해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경상대학, 사범대학 학장들과 인터뷰를 했다. 단과대학의 취업전략, 학생들에게 아쉬운 점 등을 들어봤다.



청년우수인재 집중 프로그램이 2일 오후 2시에 경상대학 2호관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양기훈(KT&G) 인재개발원장이 성공하는 삶을 이루는 법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서가 많이 들어오지만 학생들이 거절하는 경우가 많다"며 "주로 중소기업에서 추천서가 오다 보니 학생들이 생각하는 임금과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를 보면 요즘 학생들은 헝그리 정신이 부

'적극성'·'모험심' 길러라

족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학장들은 학생들이 부족한 점에 대해 '적극성과 모험심'이라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도외나 해외로 나가려는 생각을 크게 갖지 않고 육지부 학생에 비해 취업에 대한 열정이 적다고 꼬집었다.

임동춘 인문대학 학장은 "제주대 학생들이 취업에 대한 열정이 너무 약하다"면서 "제주도내에 모든 학생이 만족할 만한 일자리가 없는데 계속 도내에서 일자리를 구하려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두렵더라도 도외나 해외로 나가 꿈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근형 사회과학대학 학장은 '적극성과 참여도 부족'을 꼽았다. 강근형 학장은 "학교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학생들의 참여가 저조하다"면서 "올해 하계 취업캠프를 열었는데 참여가 많이 부족해 아쉬웠다"고 말했다. 이어 "요즘 학생들은 우리 때보다 훨씬 더 공부를 열심히 한다"며 "사회적 분위기와 여건 때문에 취업이 어려운 것이 학생들은 열심히 노력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김희철 경상대학 학장은 '자신의 능력에 맞는 직업을 찾으려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김 학장은 "경상대학 학생들 중 절반 정도는 열심히 노력하고 취업도 성공적으로 하고 있다"면서 "열심히 노력하지 않고 취업하려는 절박한 학생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자신의 능력을 깨닫고 자신이 원하는 직장보다 스펙이 떨어진다면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능력에 맞는 직장에 입사해야

‘고시’에 편중된 취업전략 바뀌야

취업 프로그램 큰 차이 없어
단과대별 차별화방안 강구

단과대학 학장들을 만나면서 아쉬웠던 점은 단과대학의 취업 프로그램이 고시 위주의 프로그램에 치중돼 있다는 점이다. 공무원 시험 혹은 고시 관련 동영상 강좌 제공, 고시반 운영 등은 대부분의 단과대학에서 운영하고 있었다. 물론 학생들이 안정적인 직장을 위해 공무원 합격을 위해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모든 학생이 공무원에 합격할 수는 없다. 이렇게 단과대학 차원에서 학생들의 관심을 돌려 줄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취업 프로그램이 단과대학마다 큰 차이가 없었다. 취업특강, 동문 초청 강연, 취업캠프 등 비슷한 내용의 프로그램들이 많았다. 이렇듯 단과대학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은 잘 보이지 않았다. 각 학과에 특성을 제일 잘 아는 곳은 단과대학이다. 그런데 비슷비슷한 프로그램들만 한다면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기 어렵다. 학생들이 취업을 용이하게 해주기 위해서 단과대학의 절실한 노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아쉬운 점이 생긴 이유는 취업전략본부가 생기면서 단과대학에 배정될 취업 관련 예산이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기 어렵다고 학장들은 말한다. 또 단과대학 차원에서 취업을 도와주려는 것보다 취업전략본부에 의존하려는

경향도 보인다. 다수의 학장들이 자신의 단과대학 정보보다는 "취업전략본부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말을 많이 했다.

물론 취업전략본부를 이용하는 것도 취업을 준비하는 길 중 하나이다. 하지만 단과대학 차원에서도 학생들의 취업을 도와줘야 한다. 고시 준비반이나 동영상 강의, 취업특강 뿐만 아니라 매칭 시스템, 제주도내 기업 소개 등도 필요하다. 학생들이 공무원이나 대기업 준비에만 몰두하도록 방지하면 안된다. 학생들이 잘 할 수 있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곳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

취업전략본부는 재학생 모두에게 고른 취업전략을 제시한다. 하지만 모든 학생들에게 맞춤형으로 취업을 도와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단과대학에서 나서서 각 학과에 맞는 취업전략을 제시해줘야 한다. 각 학과 학생들에게 원하는 직업을 묻고 저학년 때부터 직업과 관련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취업은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이 제일 중요하지만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것도 중요하다. 학생들을 묵묵히 뒤에서 도와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적극적으로 도와주면서 학생들을 이끌어야 한다. 학생들 중 부족하거나 노력없이 큰 꿈만 갖고 있다면 지적해주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김동현 기자

한다"며 "자신이 원하는 직장을 정했으면 그 직장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충실히 준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송일상 사범대학 학장은 '책 읽는 습관과 글을 쓰는 연습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송일상 학장은 "요즘 학생들은 책을 많이 읽지 않고 글을 잘 쓰지 않는다"면서 "책 읽거나

글쓰기는 시험을 칠 때나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하기에 많이 읽고 써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해외로 나가는 학생들이 매년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보면 학생들이 모험심이 줄어든 것을 느낀다"며 "해외는 도외든 직접 나가 경험과 폭을 넓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동현 기자



제주대학교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제주의소리와 함께 국제화 시민의식을 고취시키고 미래지향적 마인드를 키워주기 위해 대학생 아카데미를 마련했습니다. 국내의 명강사를 초청해 매주 화요일 오후 국제교류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JDC 대학생 아카데미는 오는 12월 4일까지 총 13개 강좌가 열립니다. 학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화려한 스펙’보다 목표의식이 중요

청춘, 가슴 뛰는 삶을 살자

김남훈 / 격투기 해설가

지난 2002년부터 5년간 격투기 해설가가 되기 위해 공중파부터 케이블방송국까지 온갖 입사서류를 냈다. 하지만 오디션이나 면접 기회조차 없었다. 흔히 말하는 스펙이 부족했기 때문이었다. 내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프로레슬러 선수 생활 밖에 없었다. 방송 해설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계 챔피언에 등극하거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양준혁 선수처럼 현역 시절 큰 업적을 남겨야 한다. 당연히 방송국에서 오디션이나 면접기회를 주지 않았다.

하지만 낙담하지 않고 새로운 전략을 세웠다. 2007년 3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직접 격투기 UCC를 만들어 배포했다. '격투기 동영상'을 만들어 인터넷에 배포하고, 포털에 노출되면 유명해 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UCC 마케팅'을 한 것이다. 30개의 격투기 동영상 시리즈를 만들어 인터넷 포털에 배포했다. 결국 100만명 이상이 접속하는 등 대박이 났다. 4개월 만에 케이블방송국에서 해설가 요청이 왔고, 이후 격투기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하는 등 큰 인기를 모았다.

스펙이란 원래 기계에 붙이는 것으로 '자동차 스펙'이라고 하면 '자동차 사양'인 셈이다. 스펙은 기득권층이 만들어 놓은 것으로, 한 인간을 사회의 부품으로 만드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우리는 스스로가 '인생의 컨베이어 벨트'에서 뛰어내려야 한다. 하지내리는 것과 떨어지는 것은 천양지차다. 뛰어내리려면 내가 어디서 어떻게 어디로 뛰어내려야 할지 미리 알고 준비해야 한다.

요즘 학생들은 스펙에 집착하고 대기업 입사를 위해 열심히 공부 하지만, 정작 자신의 인생 목표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는

깊게 생각하지 않는다. 스펙이 부족하더라도 노력과 열정을 증명할 수 있다면 좌절할 필요가 없다. 자기 자신에게 항상 질문하며 그에 대한 해답을 끊임없이 찾길 바란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라는 말을 싫어한다. 돈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없는 사람에겐 강요하는 말이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이다.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한다. 반면에 피할 수 있는 상황에서 피하지 않고 노력을 통해 극복해 나간다면 무언가 새롭게 얻을 수 있다.

과감하게 도전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살아가면서 짜증나고 열 받은 일에 대해서도 분노하지 말아야 한다. 이성적으로 침착하게 반응하면 반드시 피해야 한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했을 때 그것에 따른 희생도 생각해봐야 한다. 보통 좋아하는 분야가 일이 되면 그것을 즐기지 못한다. 좋아하는 것을 했을 때 그에 따른 소구나 희생을 감수하면서 해야 진정으로 즐길 수 있다고 본다.

격투기 선수인 호도르는 10년간 해비급 격투기에서 무패 전적을 기록했다. 키도 작고, 몸무게도 해비급에서는 적은 편이다. 하지만 그가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던 배경에는 상대선수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한 냉철한 이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호도르는 빠른 선수에게는 타격전을 피하고 철저하게 그라운드 전술을 펼쳤다. 자신보다 크고 무거운 선수에게는 스탠딩 전법을 사용해 무패의 챔피언으로 군림할 수 있었다.

영희배우 이소룡은 당시 톱스타였지만 무명배우나 스탠트맨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격려해 준 인간적인 사람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단 5편밖에 영화를 찍지 않았지만 큰 배우가 됐다. 타인의 고통에 둔감하지 말고, 잘 살펴보아야 한다.

경기장에서 운동하다 거꾸로 떨어져 하반신 마비로 1년 6개월 동안 고통과 비참한 생



“20대에 치열하게 자신을 알고

좋아하는 것을 탐색해서

자신의 꿈과 희망을 정해야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

활을 했었다. 그러나 아버지를 직접 안아드리고, 햄버거를 먹고 싶은 마음으로 재할을 걸선했다. 1년 6개월 동안 누워 있다가 기어다니기 시작했다. 이후 계단 난간을 잡고 일어서고, 천천히 두 다리도 걷기 시작했다. 누구나 처음부터 큰 승리를 거둘 수 없다. 단계별로 차근차근 밟아나가기만 성취감을 느끼고 나중에 승리할 수 있다. 끝까지 자기 힘으로 하다보면 성취감은 온다. 이를 통해 다른 사람과 경험을 나누고, 보람을 얻는 행복감을 만끽할 수 있다.

20대에는 꿈과 희망이 있어야 하고 30대에는 결과와 성과물이 있어야 한다. 20대에 치열하게 자신을 알고 좋아하는 것을 탐색해서 자신의 꿈과 희망을 정해야 한다. 꿈을 향한다는 것은 거친 바다에 도전 용기를 가져야 하는 것이다. 도전해야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의 미래가 잘 보이지 않는 것은 없기 때문에 아니라 너무 눈이 부어 부서 안 보이는 것이다.

글로벌 인재되기-열정, 창조, 집중

이근철 / 영어강사

외국유학은 커녕 영어회화 학원조차 다니지 않았다. 통역에서 영어강사까지 강사의 경력에 22년이 되고, 방송경력에는 17년이 된다. 처음 영어를 접한 것은 나의 관심과 재미에서 비롯됐다. 영어는 소통의 도구로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통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감정·영역·에너지 소통을 해야 한다.

열정에 대해서는 누구나 얘기한다. 중요한 것은 남이 나에게 얘기해주는 열정이 아니다. 내가 어떤 감정을 갖고 살아가고 있고, 남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 자기 감정과 소통해야 한다. 자기 감정을 잘 아는 사람이 앞선다. 액션과 리액션의 개념을 이해해야 한다. 액션과 리액션이 있으면 상호성인 인터랙션이 생기는 것이다.

열정을 갖고 다양한 감정을 느껴보고, 많은 경험과 시행착오를 해보는 것이 좋다. 겪어보지 않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다양한 감정들을 겪기 위해서는 좌충우돌 형이어야 한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시행착오를 거듭하라. 실패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시행착오의 문이 닫히고 도전정신을 약하게 버린다. 다양한 관점을 받아들이고 때로는 작은 실패를 반복하고 조금씩 전진해가면서 지속적인 성공을 이루게 된다.

영어를 잘하고 싶은 나의 숨은 감정은 무엇일까. 자기감정에 솔직해지자. 감정을 읽는 데 익숙해야 한다. 그 감정의 메시지를 알지 못하면 늘 짜증나고 힘들다. 왜 영어가 필요한지 자신만의 이유를 생각하고 찾아보라. 내가 왜 영어를 잘해야 할가에 대한 나만의 감정을 읽을 줄 알아야 한다. 승진, 취업, 생존을 위한 영어인지, 가만히 자신의 욕구가 무엇인지 스스로 자문자답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자연스럽게 나만의

공부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영어를 공부하는데 있어서 미국식, 영국식, 호주식 발음의 차이에 대해 크게 신경 쓴다. 하지만 발음에 신경 쓰지 마라. 발음이 전부가 아니다. 영어는 발음이 아닌 내용이 중요하다. 한국인은 영어의 문법과 발음에 지나치게 얽매이기 일쑤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한국어 토박 영어에 대해 생각해보자. 영어가 모국어인 외국인들은 반기문 총장의 영어에 대해 '아주 높은 수준의 단어를 사용하고' '문장구조가 좋고 의사도 잘 전달했음' 내용도 분명하다'라고 높은 평가를 한다.

개그맨 김형철씨는 요즘 영어 강사. 진행자로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다. 그러나 2002년에는 영어한마디 못했다. 가수 차준화 홍내로 유명세를 탔던 개그맨 공채 출신인 그가, 개그 프로그램보다 최근 영어 관련 프로그램에서 맹활약 중이다. 명확한 의사 전달력과 설득력을 갖추면 문법이나 발음은 중요하지 않다. 지금 이 순간부터 발음에 대해 편안하게 생각하라. 다른 사람의 영어 발음이 좋지 않다고 지적하는 사람이 잘못된 것이다.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다.

창조의 대명사로 불려지는 인물이 스티브 잡스다. 창조의 기본은 영역을 넘나들면서 소통하는 것이다. 서로 다른 영역들을 넘나들면서 새로움을 만들어 간다. 김덕수 패 사물놀이는 재즈 연주자와 함께 이색 국악 크로스오버 공연을 갖는다. 김덕수가 이끄는 사물놀이 한울림과 협연하는 오스트리아 출신의 4인조 재즈 그룹 '레드선'은 1987년 '국제 민속 타악기 페스티벌'에서 같이 연주한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국내 외에도 수많은 협연을 해왔으며 함께 만든 음반도 있다. 한국의 사물놀이와 서양의 재즈는 전혀 다른 음악 같지만, 사물놀이 악기와 서양 악기인 색소폰·베이스·기타가 만나 사물놀이와 판소리, 민요, 정가, 시나위 등의 음악을 대화하듯 풀어내준다.



“영어를 잘하고 싶은 나의 감정이

승진·취업·생존을 위한 영어인지,

자신의 욕구가 무엇인지에 대해

자문자답하는 시간을 가져야”

세계적 투자가인 워렌 버핏의 재산이 54조에 이른다. 그와 점심을 같이 먹는 행사가 경매에 붙여지면 최고 30억 원에 이른다. 왜 사람들은 비싼 돈을 들이며 그와 같이 점심을 먹으려고 할까. 그 이유를 알아야 한다. 투자에 관심이 있는 사람도 이 어마어마한 돈을 쉽게 내지는 못한다. 더군다나 우리 같은 사람들은 꿈도 못 꾀다. 하지만 서점에 가면 워렌 버핏의 인생철학과 투자원칙을 알 수 있는 책이 있다. 1만원 정도면 산다. 이 정도 투자하는 데에 돈을 아까워선 안 된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유럽 문명의 발상지인 스페인과 포르투갈, 그리스 등이 경제위기에 놓여 있다. 15세기에 이미 전 세계 부의 15%를 점령했던 나라들이 점점 망하고 있다. 역사를 들여다보면 교훈을 얻을 수 있다. 한사람의 인생은 100년도 안 된다. 하지만 역사책이나 위인전을 읽으면 수백만 명의 삶을 살 수 있다.

미국 정부, 제주4·3 학살에 공동책임져야

학술기고 섬 평화문화 콜로키움에서 ‘세계평화의 섬’ 협약을 제안하다



고창훈
행정학과 교수

제주-하와이 평화문화교류 버럭 오바마 대통령 하와이 축하연 참여로 시작

지난 6일 저녁 7시 하와이 문화센터에서는 닐 아버콤비 주지사 주재의 버럭 오바마 미국대통령 하와이 축하연 참여로 제주-하와이 평화문화교류를 시작하였다. 하와이는 오바마 고향이어서인지 ‘하와이는 오바마 간추리’라는 현수막과 하원의원, 상원의원, 시장 당선자 등이 차례로 인사하고 음식을 나누어 먹고 공연을 즐기는 자연스런 축하연이 오후 10시까지 이어졌다. 공화당 미트 롬니의 축하 연설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 연설이 T.V로 생중계될 때 절정을 이루었다. 중요한 문화체합의 초창에 닐 주지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다.

정의를 통한 사회적 치유: ‘미군정점령 평화시대의 한국 제주 양민대학살’ 하와이 일본문화센터에서 개최

제주특별자치도 김용범 행정자치위원장이 콜로키움과 제주해녀문화공원의 역사적 의미와 평화문화교류의 확대의 축사로 대회는 시작되었다. 하와이대 법률전문대학원 에릭 야마모토 교수는 “미국 정부가 제주 4·3의 제주도민의 대량 학살에 직접적으로 또한 상당한 정도 직접적으로 미국의 정부가 책임이 있음을 그간의 한국과 미국의 학자 그리고 자신의 연구로 명백하게 밝혀졌기 때문에 오바마 미국정부에 대하여 사과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아울러 미국정부의 사과와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공동 노력을 시작하자는 제안을 하였다. “제주 4·3의 역사적 한을 푸는 ‘정의를 통한 사회적 치유’의 공동 사업에 한국정부와 미국정부가 같이 참여해야 한다. 이 두 나라가 4·3 피해자에게 배상하고 사과하고 그래서 사회적 자유를 하지 않는다면 4·3의 배상은 불확실하고 4·3 유족들은 불편하고 4·3의 한은 남아있게 된다”는 논지는 2003년 4월 24-26일 하버드대학교의 제주4·3컨퍼런스에서 브루스 커밍스가 제주 4·3에 대한 미국정부의 책임을 넘어서는 것이어서 주목할 만하다.

그는 실제 미국정부로 하여금 2차 세계대전 후 미국계 아시아인에 대한 강제구금의 피해자 12만명에 대하여 배상을 성사시

키는 재판을 지휘하였고, 1993년 하와이의 불법전복과 인권학살에 대하여 하와이 원주민들에게 사과하는 일에 참여했다. 그는 미국정부가 전후 최고의 인권탄압인 제주 4·3에 대하여 사과하고 정의를 통한 사회적 치유에 관심을 갖고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미국은 세계의 인권을 존중하고 인도하는 도전적 권위를 가진 국가이다. 미국은 몇 십년전 제주도에서 자행된 미국의 인권침해의 사례로 제주도민에게 끼친 피해와 손해를 보상하면서 사과해야 한다. 미국정부가 민주주의의 국가로서의 완벽한 정당성을 갖는 정부라고 주장한다면 당연히 미국정부가 선도하여 4·3으로 인한 부정의를 빠르게 조명하고, 그 부정의로 받은 유가족의 피해로 생긴 한을 보상하는 ‘정의를 통한 사회적 치유’에 나서서 제주도민에 사과할 때, 진정한 의미의 상호간의 화해가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발표함으로써 미국정부의 제주 4·3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배상을 공식화하는 역사적 컨퍼런스임을 선언하면서 브루스 커밍스의 주장을 인용하는 것으로 마무리 하였다.

“제주도 사람들에 대한 (배상) 첫 번째 일 수 밖에 없다. 그것은 (대학살은) 2차 대전 후에 너무나 아름다운 제주 섬에서 자기 결정권과 사회정의를 위해 싸운 제주도민들에게 무제한적인 폭력을 행사한 미국정부의 능력을 증거한 첫 번째의 대사건이었기 때문이다.”

하와이 법전원의 백태웅 교수는 미국이 4·3 당시의 책임은 인권탄압의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는 데에 있을 뿐더러 평범한 사람들까지 파파로 몰아 탄압한 반면 서북청년단의 우파들의 무모한 폭력집단을 옹호 지지하는 부정의한 정책에 있었다고 지적하였다. 한국 정부의 경우 당연히 4·3에서의 미국정부의 인권침해 사례의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미국정부에 이를 제기할 경우 미국정부와의 불편한 관계가 형성되리라 예측하여 책임추궁을 하지 않은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 에릭 야마모토 교수는 현실정치를 고려하되 ‘정의를 통한 한국 제주 4·3 피해자의 사회적 치유’의 틀 속에서 이러한 노력을 공유하기로 하였다.

필자는 2003년 하버드 대학교 컨퍼런스에서 미국의 사과를 말하였는데 이번 발표에서 두 가지로 명시하였다. 하나는 1947년 3월 1일 시위 후의 미국정부에 의한 제주도민을 ‘빨갱이’ 제주도를 ‘빨갱이의 섬’으로 조작하여 레드컴플렉스를 야기한 직접적인 책임은 1948년 4·3 이후 한국군의 집단적 학살을 자문하고 지원하며 평가한 정책적으로 자문한 간접적인 책임 두 가지이다. 이에 대한 미국정부의 책임이 명백함을 재차 확인하였다. 이러한 차원에서 필자는 제주도 사람의 관용성 철학에 근거하여 제주4·3의 진실을 한국의 권력에 말하여 4·3의 진상규



‘섬평화문화 콜로키움’이 하와이 일본문화센터에서 11월 7일부터 3일간 하와이에서 열렸다. 섬평화를 주제로 고창훈 교수, 구니히코 요시다 교수, 에릭 야마모토 교수, 백태웅 교수 등이 참여했다.

명운동을 말하였던 만큼 제주의 4·3에 대한 미국정부의 공식사과와 ‘정의를 통한 사회적 치유’의 사업에 하와이 법학전문대학원 등과 같이 협력할 것을 말하였다.

구니히코 요시다 교수는 미국정부에 의한 제주도민 대학살 (초토화전략)의 비인간적인 행위를 적시하면서, 일본정부가 아시아 위안부와 강제 노동자에 대하여 배상해야 하는 사안과 마찬가지로, 미국정부의 배상을 요청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하였다.

양동운 제주4·3도민연대 대표는 4·3특별법의 제정과 대통령의 사과를 받은 4·3 진상규명운동의 경우, 4·3 희생자 유가족회의 결성 및 4·3 추경진상과 배상의 과제를 제기하였다. 김호춘 탐라사진협회의 대표는 4·3사진전의 도록을 전시한 책자와 Peace Island Magazine의 4·3 사진전을 설명하고 전시함으로써 사진전을 통한 평화문화교류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4·3의 한과 강정마을의 아픔을 치유하는 길 찾아

필자는 제주4·3의 한과 비민주적인 강정 해군기지 강행으로 강정마을의 아픔을 복핵 6자회담의 제주개최와 ‘세계평화의 섬 협약’을 체결하는 안을 공식적으로 제안하였다. 에릭 야마모토 교수는 현실정치를 고려하되 ‘정의를 통한 한국 제주 4·3 피해자의 사회적 치유’의 틀 속에서 이러한 노력을 공유하기로 하였다.

10월 29일 제주4·3평화재단의 ‘제주4·3의 국제적 해결’에서 발제를 맡았던 체리 타루타나 교수는 “미국정부가 제주4·3에의 사과와 세계평화의 섬 협약에 미국정부의 협력을 받을 수 있는 공동 노력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11월 7일 워싱턴디시의 버럭 오바마 축하 컨퍼런스에서 하와이의 제주4·3 콜로키움 개최와 그 주장을 하와이 상원의원 등 참가자들에게 알렸다”고 하였다. 미국의 협력을 받을 수 있다면 최선인데, 미국정부의 협력이 여의치 않을 경우 이를 관철시

킬 수 있는 공동의 비상프로그램 계획 A Contingency plan을 준비하자고 하였다.

하와이의 세계살상센터장인 글렌 페이지 박사는 하와이 컨퍼런스의 성공적 공동개최를 평가하면서 비상상 한국 : 6개국 문화 탐험 (Non Killing Korea :Six Culture Exploration, 2012)의 책을 선물하면서 문화적 접근의 가능성을 말하였다.

연구소가 11월 22일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개최한 제10차 Peace Island Forum에서 2013. 10.19-10.21 ‘세계평화의 섬 협약 국제회의’와 ‘6개 회담국 문화축제’를 제주에서 개최하여 제주4·3의 국제적 해결과 함께 강정마을 보호의 세계평화의 섬 협약의 체결을 국내외적으로 준비하면서 세계평화의 섬의 위상을 재정립해 나갈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

4·3과 강정 평화와 환경과 해양적 가치를 융합하는 세계환경대학원을 설립해야

2013.7.22-31 제3차 Peace Island Leadership School에 ‘제주4·3, 강정평화운동과 평화세움’이 Jeju April 3 Tragedy, Ganggeong Peace Movement and Peace Builder’ 과정과 해녀문화와 해양문화의 지속성, UNESCO 국제보호구역의 녹색성장과 트레빌리즘, 세계지질공원 교육이 개설되는데 이 역시 ‘세계평화의 섬’ 협약 체결의 국제적 동의에 도움을 주면서 2012 세계환경올림픽의 제주선언과 제주형 의제의 실현을 국제적으로 협력하면서 지속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세계환경대학원의 설립을 이룰 국제 역량을 키워야 한다.

이런선 예총 서귀포지회장이 주도한 제주해녀민속 하와이 공연과 4·3 사진전도 제주한류의 한 방식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지난 7월 27일 열린 제주대학교 윈드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평화 음악회’와 융합하여 뮤지컬 ‘불타’의 창작하고 제주갈투 패션쇼와 함께 해외공연에 나서게 된다면 제주한류의 형성에 기여할 것이라 본다.

권하고 싶은 책

우리에게 최상의 선택은 존재할까

사회 문화가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선택의 가짓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선택은 분명하고 강력한 도구적 가치임에 틀림없다. 선택은 우리들이 삶에서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게 해 주고, 우리들의 자율성과 자립감을 보여주기도 한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많을수록 더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고 결과적으로 더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선택의 기회가 늘어날수록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을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우리들에게 선택권이 전혀 없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 아마 상상할 수 없는 억압과 고통을 느끼고 온갖 스트레스를 겪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선택의 수가 점점 더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 그와 같은 다양성이 제공하는 자율과 해방은 우리들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개인적, 사회적, 문화적 욕구일까. 이 책에서는 이런 사회적 통념에 대해 “정말 늘어난 선택의 기회가 현대인에게 축복일까?”라는 의문을 던지고 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선택의 수가 한층 늘어나면, 부정적인 측면들은 점점 더 커지고, 우리는 결국 과부하를 안게 된다고 한다.

이 시점이 되면, 선택은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무력화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독재일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한다. 이러한 선택의 과부하에는 비용이 따르고, 또 허용된 그 모든 선택에 지나치게 집착하다 보면 나쁜 결정, 걱정, 스트레스, 불안, 나아가 우울증까지도 초래한다고 우려하고 있다. 선택의 기회가 늘어날수록 삶은 더 불행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이 책은 선택 심리의 비밀을 찾아가는 새로운 개념을 심리학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선택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심리적 반응을 심리학과 사회과학의 최신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흥미롭게 분석하여 그런 반응을 어떻게 우리의 결정에 영향을 끼치는지 설명해 주는 책이다. 저자는 우리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개인적 자유와 자율성의 상징인 선택이 오히려 우리의 심리적·감정적 만족에 해를 끼칠 수 있으며, 해결책이 아니라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이를 ‘선택의 패러독스’라고 명명하고 있다.

우리들에게 최상의 선택은 존재할까. 그리고 그 만족감은 언제까지 지속될까. 저자는 선택해야 하는 문제 때문에 우리들이 고생이 많다고 한다. 대안들이 늘



배리 슈어츠 지음
『선택의 패러독스』

어떤 포기하는 대안들도 늘어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많은 대안 중에서 선택한 결정은 만족이 희석되어 실망스러운 경험을 하게 되고 사람들은 후회를 피하려는 욕망이 생기게 된다고 한다. 때문에 수많은 후회들을 피하려다 보면 우리는 전혀 행동을 하지 않으려는 상황에 이르게도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때 끊임없이 다른 대안과 비교하게 된다. 자신이 바라는 희망과 비교하고, 자신의 기대와 비교하고, 과거에 겪었던 경험과 비교하고, 남들이 겪는 경험과 비교하게 된다. 이런 비교는 물질적, 사회적 상황이 좋아지면서 우리의 비교 기준이 높아진다고 한다. 그리고 점점 더 높아지는 경험의 질은 점점 더 높아지는 기대를 낳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만족도가 높아지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 때문에 나보다 나은 사람과의 비교는 질투, 적개심, 부정적인 감정, 낮은 자존감, 낮은 수준의 행복, 스트레스 등을 유발한다.

사람은 선택을 통해 자신의 삶을 통제한다. 하지만 선택의 실패로 인해 통제력을 상실했을 때 사람들은 무력감과 우울증을 경험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안들이 무제한인 세상에서, 개인의 자율과 통제, 완성을 추구하는 사회에서 자기책망의 감정은 더 커지게 된다. 우리의 삶에서 후회, 스트레스, 걱정 그리고 분주함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자신의 선택에 만족할 때 이루어진다.

오늘은 무슨일부터 할까? 다음 주에는 무슨 책을 읽을까? 우리들의 하루하루는 선택의 연속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다.

양영길
국어국문학과 겸임교수

STS 과학문화 시사칼럼

이 칼럼은 한국과학창의재단의 후원으로 제주대학교 과학기술사회연구센터에서 기획 운영합니다. STS연구센터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주대학교 과학기술사회연구센터 홈페이지(<http://sts.jejunu.ac.kr>), 트위터(<http://twitter.com/jejusts>), 페이스북(<http://facebook.com/jejusts>).

제주과학문화를 기반으로 한 교육관광 활성화에 거는 기대



박배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투자사업본부 부장

우리 제주도는 2002년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을 위한 제1기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한 후, 7대 선도프로젝트 등을 통한 관(官)주도의 선(先) 공공투자 및 개발정책을 시작으로 민간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왔고, 그 결과 당초 460만명 수준이었던 제주 입도관광객은 지난해 870만명이라는 수치달성과 함께, 올해는 970만명의 관광객 유치를 그 목표로 하고 있다.

제주관광객의 양적 증가가 도민들에게 어느 만큼의 부(富)를 가져왔느냐 하는 경제적 관점의 논란을 잠시 뒤로하고서라도,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 10년만에 제주관광객 천만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것은 그 수치만으로도 실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지난 1960년대부터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선호관광지, 최고의 신흥여행지 등 수많은 수식어를 달고 다녔던 제주였지만, 2000년도 초반까지 입도관광객은 겨우

400만명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하지만 최근 10년 동안 우리는 제주국제자유도시라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새로운 도전과 이를 실현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결과 과거 40년 동안의 입도 관광객 수치를 단숨에 두배 이상인 970만명이라는 목표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를 달성하는 데에는 수많은 분야의 다양한 노력들이 있었음을 인정해야 할 것이며, 제주 입도관광객들의 양적증가와 단순수치만을 강조한 개발 만능주의를 찬양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관련분야의 연구에 의하면, 관광객들의 단순 양적증가가 그 지역의 일정 수용력을 초과할 경우 조우(遭遇)형식 증가로 인한 지역민들과 마찰, 급격한 지역 전통문화 파괴, 쓰레기 등의 과다발생으로 인한 사회간접비용 증가 등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반드시 발생하게 되어 있다. 특히 최근 올레길 코스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는 강력범죄 등은 이미 해외의 여러 유명관광지 등에서 일정한 수 이상의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으로 보고된 바 있어 각별한 대책이 요구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결국 향후 10년간 제주도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제2기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을 현재 막 준비하고 있는 우리는 앞으로 제주 입도관광객의 단순 양적증가를 이세는

질적향상으로 현명하게 바꾸어 나가야 할 큰 숙제를 짊어지고 있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최근 전 세계 경기불황의 여파가 향후 제주관광에도 가장 큰 영향을 줄 변수로 예측되는데, 흔히들 경기영향을 많이 받는 관광산업과는 달리 경기불황에도 다소 강한 비즈니스가 바로 교육(education) 사업이다.

현재 제주도 전역을 ‘길’로 연결하며, 타 지자체는 물론 이웃 일본에서까지도 걷기문화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주역인 ‘제주 올레길’은 이미 유럽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각박해진 산업화, 도시화 문명의 ‘패스트(fast) slow’에 대한 반발로 나타난 ‘슬로우(slow) 문화’의 대표적인 예로서, 제주 올레는 이를 관광에 접목한 슬로우 관광(slow-tourism)의 대표적인 형태이다.

하지만 이러한 슬로우 문화나 슬로우 관광 역시 시간과 사회적, 문화적 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 다른 형태로 진화하거나 또는 여행의 사이클 속에서 쇠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변화의 사전대응 차원에서 제주도는 과학문화에 기반을 둔 교육관광(edu-tourism)에 관심을 가지는 것도 좋을 듯하다.

인간이 관광활동을 행하는 기본적인 욕구에는 항상 새로운 장소, 색다른 풍물, 또 다

른 문화 등에 대한 인간의 지적 호기심이 늘 바탕이 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이러한 욕구는 하나가 아닌 또 다른 목적을 동시에 충족하면서 즐기고자 하는 겸목적 관광활동으로 나타나는 성향이 강하다.

즉, 그동안 제주도 관광시장의 많은 구성비를 차지해 왔지만 지금은 정체되어 있는 제주 수확여행 시장의 활성화를 통한 향후 1천만명 관광시장의 새로운 블루오션 시장 개척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며, 이와는 반대로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가족단위 관광객들 속의 어린이들이 관광지 의사결정에 많은 영향인자임을 고려해 볼 때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 한 관광상품의 개발로 틈새시장을 강화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학문화 기반 교육관광 인프라는 비단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 뿐만 아니라, 우리지역 내에서도 자라나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과학문화 정착을 위한 중요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날고 싶은 인간의 욕망이 최신 첨단기술로 집약된 항공분야나 무한한 상상력의 원동력이 되는 미지의 우주개척 분야의 과학이란 주제는 남녀노소, 관광객 또는 지역주민 누구에게나 영원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중요한 콘텐츠이다.

또한 이 분야는 나로호 발사에 몇 번이나



JDC는 안덕면 사광리 일대 오설록 녹차박물관 맞은편에 약 30만 평방미터의 부지에 연면적 3만 평방미터의 3층 규모로 제주항공우주박물관의 건립 중에 있다. 사진은 박물관 내부 조형도.

실패한 뒤 국민들이 가지는 상실감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국제사회에서의 눈부신 지위상승과 외형적 경제발전에도 불구하고 뒤쳐져 있는 우리나라 항공우주 과학분야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정보의 제공으로 도내외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제공할 수도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현재 JDC는 안덕면 사광리 일대 오설록 녹차박물관 맞은편에 약 300,000㎡의 부지에 연면적 30,000㎡의 3층 규모(전망대 약40m)로 제주항공우주박물관의 건립 중에 있으며, 공사가 완공되는 향후 2014년 3월경에는 개관 후 본격적인 항공우주과학을 주제로 한 제주과학문화 기반형 교육관광 인프라를 선보일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다.

1층에는 인류의 비행에 대한 기록과 비행과 항공기의 원리, 다양한 전투기들과 민간

항공기 등이 공중부양 전시될 예정이며, 2층은 천문과 우주에 대한 각종 내용들과 우주탐사선, 로켓 등의 모형들이 전시될 예정이며, 블랙홀과 우주탐험 등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3D, 4D 시뮬레이터 체험관도 4층이 배치될 계획이다. 또한 야외 전시장과 야외 별자리 체험 캠프장, 각종 이벤트장과 더불어 다양한 식물 및 문화공간이 3층에 배치될 예정이며, 약 40m에 이르는 전망대도 관람객들에게 개방될 예정이다.

따라서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정체되어 있는 제주 수확여행객 시장의 활성화와 최근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가족단위 관광객들에게 항공우주 과학분야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정보의 제공을 통해 관광객들은 물론 도내외 자라나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함과 동시에 제주 과학문화 정착과 보급에 기여할 수 있는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역량 중심의 교육이 미래 이끈다 <5> 외국어 학습 환경은 우리가 최고

어학교육 집중 투자해 글로벌 뉴리더 양성에 박차

외국어교육원, 맞춤형 원어민 강좌·영어캠프 등 탄탄한 어학프로그램 운영
영어 학습 위한 최첨단 교육시설 확충에 박차... 필리핀에서 6개월 영어 공부

이제 외국어는 ‘약방의 감초’처럼 모든 학문의 기본이 됐다. 외국어 구사 능력을 바탕으로 경영학을 공부하거나 공학을 공부하는 등 전공 간 융합을 해야 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이다. 제주대의 교육역량 프로그램에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 교육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제주대는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탄탄한 외국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영어우수장학생 선발 제도를 비롯해 최첨단 교육시설을 확충하고 국제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영어는 기본’이란 motto 아래 외국어에 능통한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해 어학교육에 대대적으로 투자한다. “제주대에 다니는 동안 영어만큼은 비용부담 없이 배워 졸업 후 글로벌 인재가 되게 하겠다”는 대학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어학교육의 메카 외국어교육원, “영어 학습 최고의 배움터로 자리매김”

올해로 개원 18년째를 맞는 외국어교육원은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 교육역량 프로그램의 8할 이상을 맡는다. 외국어교육원은 년 6차례에 걸친 정기 특별 강좌와 각종 영어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영어,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원어민 회화 과정과 토익 및 토플, 시네마 영어, 영문법, 작문, CNN을 비롯한 영어방송 청취, 말하기·듣기·쓰기·읽기 집중반 등 35개 강좌를 개설하고 있다. 또 제주특별자치도가 공무원에 대한 장기외국어과정을, 제주도교육청이 초등교사들에 대한 연수과정을 위탁해 실시할 정도로 각계의 공인을 받았다. 초등학생을 위한 원어민 영어강좌와 자체 및 JDC 잉글리시 캠프도 운영하고 있다.

외국어교육원은 특히 글로벌 뉴리더 양성을 위한 어학교육역량 프로그램 운영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여름·겨울방학 기간에 2주 간에 걸쳐 100명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재학생 영어집중캠프’를 운영했다. 현재까지 70명이 수료한 영어집중 교육프로그램으로 교육비는 학교가 전액 부담한다. 또한 3회에 걸쳐 90명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수준별 맞춤형 원어민 영어프로그램 운영과 하계방학 기간동안 재학생 60명을 대상으로 4주간 기초영어향상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동계 방학 기간에는 재학생 40명을 대상으로 3주간 영어회화캠프를 전액 무료로 운영한다.

이와 함께 방학기간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토익집중강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밖에도 영어 학습 튜터링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튜터가 영어에 관련된 내용이라면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자신이 도움을 받고자하는 부분에 대해 튜터에게 상담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영어집중캠프와 토익집중강좌 등 교육역량 프로그램만으로 영어실력을 향상시켰다는 김경태(행정 3)씨는 “영어집중캠프를 수료한 뒤에도 외국어교육원에서 학습하며 영어의 감을 잃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외국어 자율 학습의 최적 학습공간
사운드라이브러리, English Cafe

외국어교육원은 사운드라이브러리에 1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멀티미디어 영어학습시스템을 구축해 지난 9월부터 새롭게 단장했다. 이곳에는 영어교재 2500여권과 멀티미디어 교재 500여개를 보유해 대용량 멀티미디어 동영상 빠른 속도로 보고 들을 수 있어 한해 2500여명이 이용하고 있다.

새로 구축한 멀티미디어 영어학습시스템은 ‘Speaking이 되면 세계가 보인다’는 motto 하에 급변하는 외국어 학습 트렌드를 반영한 Speaking을 중심으로 영어학습의 4가지 기술을 스스로 학습하는 콘텐츠이다. 수준별 테스트를 통한 학습자 수준 측정을 통해 기초부터 고급까지 수준별 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축돼 있다.

특히 Listening, Speaking, Reading, Writing에 대한 통합적 학습 결과에 대한 성취도 확인 및 음성인식 엔진을 통한 발음 교정 등 학습자 스스로 자기주도적 학습 여건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외국어교육원은 학생들이 원어민과의 접촉 기회 확대를 위해 English Cafe도 운영하고 있다. 원어민과의 무료 Free talking에 무료 원두커피까지 제공하는 학내 최고의 아카데믹 문화 공간이다. ‘English Cafe’에서는 원어민과 함께하는 자유주제 토론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학생들은 공지된 영어토론 진행 날짜, 진행 원어민, 대화 주제와 수준 등을 확인한 뒤 해당 시간에 자유롭게 참석이 가능하다. 매월 200여명의 재학생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영어회화 능력은 물론 국제화 감각을 향상시킨다.

자신의 영어 수준을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체크해 볼 수 있는 ‘영어 솔루션’도 개발했다. FLI Level Test는 외국어교육원에서 자체 개발한 문제를 가지고 회화, 독해, 어휘, 문법 분야의 실력을 측정하는 진단 평가이다. FLI Level Test는 외국어교육원을 직접 방문해 응시할 수도 있지만 홈페이지



지난 9월 1억여원을 들여 새롭게 단장한 외국어교육원 사운드라이브러리를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다. 이곳에는 영어교재 2500여권과 멀티미디어 교재 500여개를 보유해 최적의 학습 여건을 제공하고 있다.

지를 통해서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외국어교육원,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수강생 부쩍 늘어

외국어교육원을 찾는 발길이 부쩍 늘고 있다. 외국어교육원 개설 강좌에 대한 홍보와 수강생 혜택이 크게 강화됐기 때문이다. 외국어 특별강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수강생수는 전년대비 57%나 상승했다. 2012학년도 1, 2차 외국어특별강좌와 토익특별반 수강생수가 634명으로 전년대비 같은 기간 230명이 증가했다. 수강생들에 대한 혜택으로 80% 이상 출석자에게는 수강료 50%가 교육역량강화사업비에서 지원된다.

외국어교육원은 토익 준비생들을 위해서 토익시험 대비 실전 모의고사를 매달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6차례 1234명이 응시한 모의토익은 올해부터 매달 한차례 실시해 7차까지 737명이 응시했다. 모의토익은 예상 토익 문제를 실천처럼 풀 수 있게 한 것으로, 문제를 푼 후 정답 개수와 등수 확인까지 가능해 평소 자신의 토익 실력을 객관적으로 점검해 볼 수 있다. 또한 모든 문제에 무료 해설을 제공, 틀린 문제까지 꼼꼼하게 재학습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외국어교육원은 모의 토익 성적 결과를 바탕으로 단과대학별 재학생의 외국어 능력 향상 목표를 설정해 장기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수준별 반 편성 자료와 다양한 국제화 연수 프로그램 선발 자료로도 활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연 두 차례 모의토익 경시대회를 치러 최고 득점자 순으로 선발된 입상자에게는 총 100만원의 격려금도 준다.

영어 조금씩 향상돼도 장학금 받아

영어 학습을 독려하기 위해 공인 외국어 시험 성적에 향상되면 영어우수장학금을 주고 있다. 이를 위해 교육역량강화사업비 1억 2000만원과 발전기금 장학금 2000만원 등 총 1억4000만원의 재원을 확보했다.

제주대는 영어성적의 기준등급에 따라 영어우수장학금을 우선 지급한 뒤, 향상된 점수에 비례하여 장학금을 추가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어우수장학금 1등급 50만원, 2등급 30만원, 3등급 10만원을 기준으로 향상점수가 10점 이상이면 2만원씩 증액 지급해 최저 5만원부터 최고 50만원까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필리핀에서 6개월 영어 공부

어학교육 프로그램은 외국 현지에서도 실시한다. 제주대는 ‘글로벌 뉴리더 양성’ 프로그램에 따라 필리핀 4개 대학교와 협정을 맺고 현지어학연수원을 열었다. 이곳에서 올해 87명의 학생이 최장 6개월간 머물면서 영어공부를 하며 현지문화를 체험하고 있다. 학생들은 개인당 연수비 350만원을 지원받으며 영어공부에 전념하고 있다. 학생들은 정규 어학원에서 정해진 교육프로그램에 따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에는 실생활 영어 구사 능력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둔 영어 듣기, 읽기, 쓰기 정규수업을 받는다. 오후에는 그룹별로 현지인을 인터뷰하는 과제를 수행한다. 배운 내용을 실생활에 바로 적용하며 회화 능력을 키우는 것.

필리핀 어학연수를 마친 이동민(전기공 2)씨는 “주말마다 필리핀 내 다른 지역을 방문하면서 직접 현지인과 대화했다”면서 “연수기간 동안에는 원어민 강사의 지도를 받으며 영어회화에 대한 자신감이 부쩍 늘었다”고 말했다.

권영근(영어영문학과 교수) 외국어교육원장은 “최신 시설 투자로 학습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여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으로 영어 능력 향상에 크게 기여하리라 기대된다”면서 “유능한 강사진을 초빙해 강의의 질을 향상시키는 물론 강좌에 대한 홍보와 수강생 혜택강화를 통해 학생들이 저렴한 가격에 외국어실력을 쌓고 취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연초록 인문학! 제주에 말을 걸다! - 쯔마들의 논어 이야기와 제주여성

‘소해가족’ 형태가 여성 사회참여 높여

‘인문학! 제주에 말을 걸다!’의 다섯 번째 강연이 지난 14일 오후 7시 제주치과의사회 강당에서 강봉수(윤리교육과) 교수의 ‘쯔마들의 논어이야기와 제주여성’을 주제로 열렸다. 이날 강연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구성했다.



강봉수 교수

▶『어논어』는 어떤 책인가.
중국의 당나라 시대에 송약소(宋若昭)라는 여성이 집필한 책이다. 당나라 시대의 유명한 학자였던 송정분(宋廷芬)이라는 사람의 둘째 딸인 송약소(宋若昭)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현존하는 『어논어』가 그녀의 저작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신당서(新唐書)』에서는 『어논어』를 실제 지은 사람은 언니이며 장녀인 송약화(宋若華)이고, 동생인 송약소는 주석을 달았을 뿐이라고 한다. 그러나 송약소가 학문에 특출하여 당나라 헌종, 목종, 경종 세 조정을 거치면서 황후이후의 후궁이나 왕자들의 교사로 활동했다. 이러한 그녀의 명성이 결국 『어논어』의 저자로 규정하게 되었는지는 모르겠다.

『어논어』를 주제로 삼고자 한 이유는 어디까지나 오늘 주제에 걸맞은 이야기의 주제 혹은 기준으로 삼기 위해서다. 『어논어』는 바로 오늘을 사는 남성이나 여성 모두에게 하나의 바로미터가 된다. 과연 오늘의 여성들은 『어논어』가 요구했던 규범 혹은 의식으로부터 얼마나 다른가, 또한 오늘의 남성들은 여성들에 대해 과연 전통으로부터 얼마나 다른 관념, 의식, 행동 등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해보자는 의미이다.

이쩌면 육지부의 사람들과 제주 사람들 간에도 차이가 있다. 제주사람들은 육지사람들보다 유교적 문법의 세례를 그레도 덜 받은 삶을 살아온 측면도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어논어』를 기준으로 하면서 오늘날의 신 여성규범과 삶, 제주여성들의 삶의 양식 등과 비교하면 서 시대와 공간을 넘어서는 대화를 해보면 재밌다.

▶『어논어』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다.
1장부터 12장까지 차례대로 보면 좋겠지만, 읽어보면 비슷한 주제로 장들을 묶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럼 주제별로 묶어 논의하기로 하면 대략 여섯 주제로 구분해 볼 수 있다. △1장과 12장은 여성의 마음씨(淸貞)와 성적 순결(守節)에 대한 내용이다. △2장과 3장은 여성이 배워야 할 일과 예절에 대한 내용이다. △4장과 9장은 여성의 가사와 집안 운영에 관한 내용이다. △5장과 6장과 7장은 딸 혹은 며느리로서, 또는 아내로서 부

모, 시부모, 남편 섬김에 대한 내용이다. △8장은 자녀교육에 관한 내용이다. △10장과 11장은 손님맞이와 이웃 사림에 대한 내용이다.
▶ 이처럼 제주여성이 남다른 측면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제주여성은 노동과 일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여성보다 사회적 활동에도 적극적이었다고 본다. 그만큼 제주여성은 집안에서 독립적 지위와 자율성이 컸다고 하겠다.

제주여성의 역할의 증대와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제주의 가족형태와 관련이 있다. 즉, 제주의 가족형태는 결혼 이후 자식들이 분가해서 살고 부모들도 자식들에 의존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하였기 때문에 부부와 미혼자녀들로 구성되는 부부가족 혹은 핵가족의 형태가 대부분이었다.

부부중심의 독립된 생활은 그만큼 여성, 부녀자의 자율성과 역할 참여의 증대와 관련되게 마련이었다. 이룰테면, 김홍사시의 부조에서 가족을 단위로 하지 않고 개인단위로 주고받는 ‘겉부조’도 여성의 사회참여의 자율성을 보여주는 예이기도 하다.

특히 어필증부사상이 상대적으로 약했다는 걸 볼 수 있다. 의사결정에서도 부부가 의논하여 결정한다. 효의 실천과 관련해서 육지부와는 남다른 측면이 있었다. 부부중심의 가족형태, 부모를 모시고 살아가도 살림을 따로 하는 안거리와 밖거리 문화는 분명히 육지부의 가부장 중심의 확대가족의 경우와는 다른 효 문화를 형성했을 것이다.

특히 제주는 육지부의 부계친중심의 친족체계, 장자중심의 재산상속, 제사상속의 제도와는 다른 측면이 있다. 제주에서는 친가 뿐만 아니라 외가와 처가가 족도 중요한 친척범위로 생각했다. 외가나 처가의 친족들은 제사를 제외한 사교관계, 의례적 관계, 생산활동의 협조, 가사활동의 협조 등 생활의 전 영역에서 부계친과의 관계와 차이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거의 동등하게 긴밀한 협동이 이뤄져 왔다.

김명지 기자



제주어 낱말맞추기

제주어 공부도 하고, 2만원 상품권도 받아!

1)		2)		11)	12)	
		3)				
4)	5)					
		6)				
7)		8)		9)		
10)						

()학과/학부 ()학년
이름 : 연락처 :

제주대신문

가로 열쇠

- 1) ‘잠녀들이 바다에서 물질할 때 뺏던 하얀 수건’을 ‘○○○’이라고 한다. 요즘은 이것 대신에 고무모자를 쓰고 물질한다.
- 3) ‘기’를 제주에서는 ‘○○’라고 하고, ‘기 큰 아이’를 제주에서는 ‘○○ 큰 아이’라고 한다.
- 4) ‘다른 곳에 있는 사람에게 소식을 전하는 것’의 의미하는 제주어로, 표준어 ‘기발’에 대응하는 말이다.
- 6) ‘진땀’을 가리키는 제주어이다.
- 8) ‘부역을 관장하는 여신’을 제주에서 일컫는 이름이다.
- 10) 표준어 ‘달걀’에 대응하는 제주어이다.
- 11) ‘숨을 넣어서 만든 옷’을 제주에서는 ‘○○○’이라고 한다. ‘숨을 넣어서 만든 이불’은 ‘○○이불’이라고 한다.

세로 열쇠

- 1) ‘나은 지 얼마 안 되어 몸이 굳지 않은 아기’를 말한다. 표준어 ‘갯난아기’에 대응하는 제주어이다.
- 2) ‘국이나 찌개 따위의 국물이 있는 음식 속에 들어 있는 국물 이외의 것’을 표준어로 ‘건더기’라고 한다. 이에 대응하는 제주어는 ‘○○’라고 한다.
- 5) ‘벌이 떨어진 밭’이라는 뜻으로 ‘넓고 기름진 밭’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 7) ‘수탉’을 제주에서는 ‘○○’이라고 한다.
- 8) 추자도에서 많이 잡히는 바닷물고기다. 구워서 먹거나 조려서 먹는데 맛이 담백하니 일품이다. 이것을 팔려면 ‘굴바’라고 하여 비싼 값에 팔린다.
- 9) 표준어 ‘할머니’에 대응하는 제주어이다.
- 12) ‘지렁이’를 제주에서는 ‘○○○’이라고 한다. 지역에 따라서 ‘지렁이’, ‘지렁이’, ‘지렁이’라고도 한다.

제주어 낱말맞추기 응모자는 2013년 2월 15일(금) 오후 6시까지 풀이지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당첨자 2명에게 2만원권 문화상품권 1장씩을 드립니다. 이번호 당첨자는 2월 20일(수) 885호 제주대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064)754-2277 또는 010-9206-4598

제주어 낱말맞추기 당첨자

이번주 낱말맞추기 정답자가 없어 경품 당첨자는 발표하지 않습니다.

<881호 정답>

호	미					
	네	끼	다		매	
괘	기		금		역	
양			바	농	귀	
	비	바	리			
종	애(애)			장	평	
지	기			물		

출제 : 국어문화원 부설 제주어센터

교육역량강화사업 안내

1. 경력관리 우수학생 지원

-대상 : 전학년
-등록기간 : 12월 7일까지
-신청방법 : 경력관리 프로그램에 선정기간까지 등록
-문의 : 취업전략본부 (754-2305)

2. 공직적격성 평가 시험 준비

-대상 : 고등고시 시험 준비생
-모집기간 : 행정안전부 공시 후 12월 중 모집
-신청방법 : 취업전략본부 홈페이지
-문의 : 취업전략본부 (754-2307)

3. 경력개발 맞춤형 프로그램

-대상 : 4학년
-모집기간 : 방학 전까지 모집
-신청방법 : 소속학과로 참가 신청
-문의 : 취업전략본부 (754-2034)

4. 단기파견 지원

-대상 : 우수신입생 및 재학생
-신청기간 : 11월 30일까지
-신청방법 : 제출서류 구비 후 소속학과 제출
-문의 : 국제교류본부 (754-2198)

교수시론

‘화룡점정’으로 하늘을 날자

〈畫龍點睛〉



허대식
음악학부 교수

“

나의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고

자신만의 꿈을 갖고 살며

열정을 갖고 끊임없이 도전하면

기적의 아이템 될 것

”

이 고사성어의 유래를 검색해서 요약해보면, 남북조(南北朝) 시대, 남조인 양나라에 벼슬로도 입신하였고 모든 사물을 실물과 똑같이 그리 는 화가로 유명하다는 장승요라는 사람이 있었다. 하루는 금릉에 있는 절, 안락사의 주지로부터 용을 그려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는 절의 벽에다 하늘로 날아 오를듯한 두 마리의 용을 생동감 있게 그렸다. 주지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이 벽화를 보고 감탄을 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그 용의 눈에 눈동자가 그려져 있지 않았다. 주지가 이상하게 여겨 그 이유를 묻자, 장승요는 ‘눈동자를 그려 넣으면 용은 당장 벽을 박차고 하늘로 날아가 버릴 것이요’라고 대답을 했다 한다. 주지와 사람들은 그를 비롯하여 눈동자를 그려 넣어 그림을 완성하라고 했다. 이에 그는 붓을 들어 용의 눈에 점을 찍었다.

그러자 돌연 번개가 번쩍이고 천둥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더니 한 마리의 용이 튀어나와 비늘을 번뜩이며 하늘로 날아가 버렸다. 그러나 눈동자를 그려 넣지 않은 용은 벽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수형기에 기록되어 있고 장승요가 ‘벽에 그린 용에 눈동자를 그려 넣은 즉시 용이 하늘로 올라갔다’라는 뜻으로,

‘가장 요긴한 부분을 마치어 완성시키다’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필자는 이 고사성어의 의미를 되새기며, 인생의 새로운 변신을 꿈꾸는 제자들에게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를 수반한 우리나라에 아주 소중한 핵심이 될 수 있는 ‘화룡점정’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싶다. 진정한 ‘화룡점정’이 되기 위해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이들에게 아래와 같이 세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나의 모습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 상대방과의 비교에서 자만심과 열등감을 갖지 말고 내가 처한 상황 그대로를 인정하는 것이다. 사회에 갓 진출하는 사회초년병들은 남들보다 상대적으로 빈약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그 이유에 원망하며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현실은 꼭 출발선상이 도착지점과 동일하지는 않다. 어렸을 적 너무나 자주 들었던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는 그래서 더욱 회자되는 것이다.

둘째, 자기만의 꿈을 꾸자. ‘모든 성취의 출발점은 꿈을 꾸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나폴레옹의 명언이 생각이 난다. 꿈을 꾸는 자가 의욕을 갖고 모든 일들을 열심히 이루어 나가리라

본다. 물론 힘든 현실이 우리를 짓누르지만, 우리의 꿈을 좌절 시킬 만큼의 현실의 어려움은 없으리라 본다. 어디에서 본 문구가 생각이 난다. “잠을 설치 정도로 간절히 바라는 꿈이 있는가? 목숨을 걸고 노력한다면 우주의 모든 것이 당신의 꿈을 지원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열정을 갖고 끊임없는 도전으로 자신을 과욕했으면 한다. 도전을 하게 되면 자신을 사랑하게 될 것이며 성취감도 맛보게 될 것이다. 간혹 우리는 불확실과 불가능을 외면하는 경우가 있다. 열정과 도전할 용기가 있다면 불가능을 불확실로 바꿀 수가 있으며 불확실이 가능으로도 다가오는 경험을 할 수 있다.

대 작곡가 베토벤(L.v.Beethoven)이 완전히 청각을 잃은 후에도 대작을 작곡할 수 있었던 것은 음악을 통한 자기의 성찰, 열정과 꿈을 이루기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나의 모습 그대로 인정하는 것, 꿈을 꾸는 것과 도전은 당신을 진정한 ‘화룡점정’으로 만드는 기적의 아이템이 될 것이다. 화룡점정의 고사성어에서는 점을 찍는 순간 벽화 속의 용이 하늘을 날았지만, 현실에서는 당신과 당신이 속한 곳이 하늘을 날게 될 것이다.

동문칼럼

사회성 키우기엔 연애가 ‘보약’



김태연
제주대의리 기자
언론홍보학과 08학번

글머리를 여는데 좀 억울한 생각이 든다. 졸업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 동문으로 분류되다니, 아직도 학교에 가면 아는 얼굴들이 더 많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낯이 뜨거워 견딜 수가 없다. 이제 갓 1년 차, 아직도 허우적댄 때가 훨씬 많은데 무슨 자격으로 이 글을 쓴단 말인가.

그럼에도 원고 청탁을 거절하지 않은 것은 아직 학교에 미련이 남아 그렇다. ‘학생이었으면...’이라는 전제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현장에서 겪고 있어서다. 또한 학교에 다닐 때 겪어서 다행이다 싶은 일들을 귀찮고자지 엄지 없게 원고를 맡았다.

언론홍보학을 전공했지만 고등학교 시절에는 심리학도를 꿈꿨다. 심리학과가 없는 제주대에 입학할 생각이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수능을 치르고 가족들의 극구 반대에 끝내 ‘제주대’에 입학했다. 떠돌이 듯 학교에 들어와 절망의 1년을 보냈다. 당연히 학교에 정을 붙이지 못했다. 버스에서 내릴 때가 되면 세상 온 종령이 내게 쏘리는 기분마저 들었다. 그러던 내게 터닝 포인트가 됐던 건 서울대에 다니는 친구의 한 마디. 1학년 겨울방학, 나를 학교로 불러 구경까지 시킨 그 친구는 ‘제주나 서울이나 별 다를 게 없다.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말을 새겨줬다.

학부에서 ‘언론홍보학과’를 고르고 2학년이 되자 앞에서 깨고 나온 듯 새로운 생활이 시작됐다. 뭐라도해보자는 마음을 그제야 먹었다. 머리와 몸을 과몰입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다. 학과 활동은 모조리 참석했고 심지어는 동아리 활동도 했다. 결국 관뒀지만 복수전공을 한담시고 인문대와 경영대를 드나들기도 했다. 학과 학생회 부회장을 맡기도, 가을엔 선거운동본부 활동도 했다. 주말에는 기어코 버스를 타고서라도 동서남북 좋다는 데를 찾아다녔고 방학엔 배낭 하나 걸쳐 매고 여행을 다니기도 했다.

언론홍보학과 학생으로서 3년 동안은 ‘사서 고생’의 연속이었다. 집에 있어 본 기억이 별로 없다. 용기를 내서 상자 안에서 벗어 나야 새로운 틀 밖의 사고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을 3년에 걸쳐 깨닫게 됐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의 감동을 가능한 한 많이 느끼는 게 좋다고 여겼다. ‘용기와 모험이 없다면 사랑과 감동도 없다’는 건 내 몸으로 느껴야만 알 수 있다.

익숙하지 않은 자극으로 자신의 한계를 넓혀가는 성취감이 ‘사서 고생’의 보상이다. 어쩌면 사서 고생이 몸 배에서 기지라는 직업을 택하게 됐는지도 모른다. 내가 굳이 이 말을 꺼내는 이유는 ‘내가 이랬으니 너희들도 나처럼 해’가 아니다. 그 말을 아직 만나지 못하고 헤매고 있을 누군가에게 건네는 말이다. 나도 그 말을 듣지 못했다면 아직도 학교에 다니고 있었을지도 모르기에.

기자 김태연으로서 후배들에게 해줄 말이 없다. ‘신문 좀 읽어라’는 고리타분한 잔소리는 내가 듣기도 싫고 어디 가서 하고 싶지도 않다. 게다가 나 역시도 잘 못했던 것들이기도 하다.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단 한 마디. ‘연애’는 꼭 하라고 권하고 싶다. 하다못해 짝사랑이라도. 고등학교 다닐 적부터 나 스스로에게도 남들에게도 연애하란 이야기는 수도 없이 했던 것 같다. 나와 남을 한꺼번에 알 수 있는 도구이자 수단은 오로지 연애뿐이다. 사랑하는 상대 앞에선 내가 생각했던 내 모습이 아니라 진짜 내 모습을 마주할 수 있다고 나는 믿는다.

그래서 해야 한다. 상대의 한 마디에 종일 나사 빠진 사람이 돼 보기도 하고, 감당 못할 울렁거림도 겪어봐야 하고, 이별에 부딪혀 일상을 내용물이 쳐보기도 해야 한다. 그 모든 경험은 분명 운동장으로만 이뤄진 사회를 이해하는 데도 영향을 미친다. 그 어떤 학원에서도 가르쳐주지 않는, 사람 대하는 매뉴얼은 연애만이 가르쳐줄 수 있다.

들하르방

대학생이 사회변화의 주체로 나서야



김명지 편집국장

우리들에게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미래가 아닌 ‘지금’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영위해야 한다. 자신의 삶을 미래를 위한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미래의 행복을 위해 지금 이 순간의 고통과 비굴을 참고 견딜 필요는 없다. 바로 지금이 중요하다. 미래를 위해 노예로 살지 말고 지금 자유로운 주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 지금 노예로 살면 영원히 노예로 사는 것이고, 지금 주인으로 살면 영원히 주인으로 사는 것이라고.”

이는 ‘철학이 필요한 시간’ (강신주 저)이란 제목의 도서에서 니체(Friedrich Wilhelm Nietzsche)에 대해 나온 구절이다. 니체는 본인의 저서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영원회귀성에 대해 논했다. 그에 의하면, 생(生)은 원의 형상을 띠면서 영원히 반복되는 것이고, 피안의 생활에 이르는 것도, 환생(還生)하

여 다음 세상에서 새로운 생활로 들어가는 것도 모두 부정하고, 항상 동일한 것이 되풀이된다는 사상이다.

이 책에서 니체는 현실의 삶에서 고뇌와 기쁨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순간만큼은 충실하게 생활하는 데에 생의 자유와 구원이 있다고 주장했다.

내가 이 책의 구절을 인용한 이유는 현재 대한민국의 20대를 향해 니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20대는 사회의 강자가 만들어 놓은 세계에서 살고 있다. 그로 인해 20대들은 매일 힘들게 살고 있다. ‘고액대학등록금 사회’, ‘스펙경쟁 사회’, ‘학벌 사회’, ‘승자독식 사회’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 가운데서 청년들의 경제적인 고통을 살펴보자. 많은 대학생들이 전공 및 취업공부에 매진하지 못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는 ‘등록금’ 때문 때문이다. 대학생으로서 적지않은 대학 등록금은 학생들에게 대학 캠퍼스를 뒤로하고 아르바이트 가게로 안내한다.

한 학생은 “아르바이트 도중에 틈틈이 공부를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실 기회가 많지 않아 공부 는커녕 그나마 남는 시간에 잠시 토의 책을 들여다보는 게 전부”라고 말했다.

공부를 해야 할 학생들이 그 시간에 대학 수업 교재가 아닌 식당 메뉴판과 생활정보지를 손에 들어야 하다 보니 그 몸으로 학교 강의실에 가면 비몽사몽이 되기 일쑤다. 그러다보니 수업을 듣는 중 마는 중 하다가 또다시 일터로 나서는 다람쥐 쳇바퀴 굴러가는 일상이 반복된다.

일부에서는 제주대의 등록금이 수도권 사립대와 비교해 높은 등록금이 아니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그러나 제주도민 1인당 개인 소득이 전국 평균에 비해 크게 낮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 대학 등록금이 학생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 일상을 논하는 자체도 지겨워진 세상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지는 것일까. 일부의 기성세대와 정치권은 “많이 힘들지만 조금만 참고 버텨라, 조금만 더 희망을 가져라”하며 희망고문만 일삼고 있다.

그 진부한 고문을 버티지 못하고 20대들은 죽

어가고 있다. 올해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서도 20대 사망원인 중 절반 이상이 자살이 차지한다고 나와 있다. 청년자살 문제를 전문가들은 사회 불안이라고 말한다.

지금까지 그래도 잘 버텸겠지만, 이제 우리 청년들은 점점 그 힘을 잃어가고 있다. 우리 청년 각자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문제에 직접 행동으로 나서야 할 때이다.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자신 밖에 없다. 미래의 행복을 위해 지금의 행복을 유예하면 행복은 오지 않는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행복을 찾아 나서야 할 때이다.

비단 등록금 문제만이 아니다. 그저 사회문제로 치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도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칠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직접 고쳐야하는 주체이다. 찾아보면 제주에도 청년들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공감하고 직접 행동으로 나서는 모임은 있다.

다시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한다. “미래를 위해 노예로 살지 말고 지금 자유로운 주인의 삶을 살자.”

독자기고

세계자연유산 등재 취소될 수 있어

외국어교육원 에세이 우수 수상작

원어민 수업으로 영어에 대한 자신감 찾다



현윤선
국어국문학과 4

으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후배들에게 꼭 가보라고 권유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내심 스스로에게 실망했는데, 그 이유는 영어 때문이었다.

내가 머물렀던 집에는 브라질에서 온 글라우니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내가 듣기엔 발음이 그리 좋지 않았고 간혹 문법에 맞지 않는 문장을 구사했다. 하지만 왜냐 가족들은 내말보다 그녀의 말을 훨씬 더 잘 알아들었다. 거기에서부터 나의 좌절은 시작되었다. 물론 가기 전에 영어 준비를 많이 하지 않아서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막상 그렇게 영어실력이 비교가 되니 패배감이 들었다. 무엇보다 나를 절망하게 한 건 나의 소심함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언제나 당당하게 요구하고, 문법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주눅 들지 않았다. 오히려 대화를 부드럽게 잘 이끌어 나가고, 틀린 단어가 있을 경우 바로바로 고쳐나갔다. 그에 비해 나는 무슨 말을 하려고 할 때 수백 번 생각해서 말했고, 간혹 정말 필요한 것이었는데 창피하다는 이유로 결국 말을 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물론 가족들과 글라우니는 나에게 굉장히 따뜻

하게 잘 대해주었다. 하지만 내 안에서 자라난 영어에 대한 열등감은 한국에 와서도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런데 위기는 곧 기회라고 했는가? 그런 마음이 계속 이어지자 오히려 영어공부에 대한 의지가 생겼고, 자연스럽게 아침에 할 수 있는 외국어교육원 프로그램에 신청하게 됐다. 그때 나는 꼭 열심히 영어 공부해서 언젠가 캐나다에 다시 갔을 때 내 향상된 영어실력을 보여주고 말테다.’라고 다짐했다.

그렇게 시작된 나의 영어공부는 외국어교육원 원 어민강좌 Level 1과 Level 2를 거치게 되었다. 그동안 많이 향상되었나고 누가 물어본다면 사실 자신 있게 ‘그렇다’라고 대답은 못하겠었다. 하지만 최소한 외국인 앞에서 떨지 않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은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초반에는 한국 사람들이 무서웠던 것 같다. 내가 무슨 말을 했을 때 문법적으로 틀리다고 지적하면 어떡하지, 내가 틀린 단어를 말했을 때 비롯으면 어떡하지 등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데 시간을 많이 낭비해 버린 것 같아서 조금은 아쉽다.

사실 외국어교육원 수업은 비슷한 레벨의 사람들이 수업을 듣기 때문에 실력차이가 그리 심하지 않다. 그래서 서로서로 격려도 많이 해주고, 영어를 배우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신청해서 왔기 때문에 다들 열심히 한다.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나면 말을 하는데 두려움이 차츰 없어지기 시작하고, 틀리더라도 일단은 내뱉게 된다. 그러면서 점점 자신감이 생기고 원어민 선생님 앞에서 떨지 않게 되었다던 것 같다.

이런 자신감을 얻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나는 정말

감사하고 큰 수확을 얻었다고 생각한다. 또 하나 좋았던 점은 요일별로 주제가 다양했다는 점이다. Evan 선생님은 각각 요일별로 읽기, 쓰기, 문법, 어휘, 게임 등 주제를 바꾸어 가면서 진행했다. 그래서 인지 영어를 학문이 아닌 외국어로서 느끼게 되었던 것 같다. 특히 금요일에 했던 게임들이 가장 재미있었는데, 조를 나누어 하다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어를 자연스럽게 말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자츰 영어가 재미있어지기 시작했다.

외국어교육원 수업을 들은 지도 벌써 4개월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그때 얻은 자신감으로 열심히 영어공부를 하고 있다. 그리고 드디어 내년엔 캐나다로 워킹홀리데이를 떠나게 되었다. 목표를 정해서 열심히 하다 보니 정말로 원하던 캐나다에 다시 가게 되었고, 그곳에 가서 꼭 내 향상된 영어를 보여줄 것이다. 특히 과거에 주눅 들어 있던 내가 아닌, 외국어교육원 수업을 통해 얻은 자신감 있는 나를 꼭 보여줄 것이다.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학내의 이슈에 대한 주장, 대학생활에서 느끼는 불편한 점 등 주제로 글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게재된 원고에 한해 2만원을 드립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 이름, 학과, 게재번호를 반드시 기입해 주십시오.

-보내실 곳 : press@jejunu.ac.kr



이민지
행정학과 2

단하다.

그러나 제주는 이 영예로운 타이틀을 박탈당할 수 있다. 그러나 ‘자극 박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세계자연유산은 심사를 통하여 자연유산으로 선정된 유산을 박탈시키기도 하며 위기유산으로 분류하여 취급되기도 한다.

필론대성당은 1996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그러나 도시 재개발이 진행되면서 성당 주변에 고층 빌딩이 속속 들어서 ‘경관적 가치’가 떨어짐에 따라 2004년 세계의 위기 유산 목록에 오르는 불명예를 얻었다. 하지만 시장국의 성당 주변 고도규제 등의 노력으로 위기유산에서 빠져 나올 수 있었다. 또한 개발도상국도 세계자연유산 등록 말소 사례가 허다하다.

그렇다면 우리 제주는 안심할 수 있을까.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검은 오름은 등산객의 편의를 위하여 아스팔트 등산로가 만들어지고 있다. 또한 세계자연유산 관리를 위하여 숲을 없애고 막대한 돈을 투자하여 세계자연유산센터가 건립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표하고 있지만 막히 우리를 반영한

변화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세계자연유산이 되어 자연을 훼손하고 있는 아이러니를 빗하고 있는 것이다. 또 자연유산 해설사의 부족과 자연유산 보호를 위해 방문객들을 강하게 규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부족하다. 위의 독일의 사례에서는 쾰른성당이 위기유산으로 선택되었다가 시장국의 노력으로 다시 문화유산의 타이틀을 얻을 수 있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도 좋지만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 위기유산의 사례들을 검토해보고 우리 제주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올해 제주는 재평가를 받았다 세계자연유산에 대한 재평가는 6년마다 하는 게 원칙이지만 유네스코가 올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세계자연유산을 한 번에 재평가하기로 해 일정이 1년 앞당겨져 지난 7월 러시아에서 열린 제36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총회에서 제주도를 세계자연유산으로 계속 인정할 것 인지를 결정했고, 생물권보전지역 정기보고서는 9월 유네스코의 인간과 생물권 계획(MAB)위원회에 제출되어 2002년 등록 후 10년 만에 재평가를 받았다. 조금씩 재평가에 관심을 갖고 관리와 자연유산에 대한 주민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아직 부족하고, 이러한 관리의 중요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도민들이 너무 많다.

이번 평가를 통해 제주가 세계자연유산 지속이 가능해졌지만, 앞으로의 재평가와 유산의 보호를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위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안으로서 제주도민 모두가 제주환경보호에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하려는 노력이 어느때보다 필요할 때이다.

시대와 역사의 아픔을 증언하다

■ 영화평

-제주4·3 영화 ‘지슬’과 22일의 고문이야기 ‘남영동 1985’



오벌 감독의 영화 '지슬' 포스터

어느덧 대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돌이켜 보면 우리가 원하는 차기 대권주자를 우리 손으로 땀땀하게 뽑을 수 있게 된 지도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우리의 정치는 근현대사 과정에서 피 흘린 수많은 이들의 희생을 빼놓고서는 논할 수 없다. 해방 이후 제주에서 일어난 4·3사건으로 영문도 모른 채 목숨을 잃은 무수한 제주도민들, 군부독재 시절 자행된 무자비한 고문과 탄압 때문에 죽거나 아직까지 후유증에 시달리는 사람들. 시대와 역사가 남긴 이들의 아픔을, 두 편의 신작영화는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다. 영화 ‘지슬’과 ‘남영동 1985’이다.

제주4·3을 다룬 오벌 감독의 영화 ‘지슬’은 지난 21일 제주 영화문화예술센터에서 열린 후원인을 위한 특별시사회를 통해 제주에 첫 선을 보였다. 이 영화는 2012 부산국제영화제에서 4관왕의 영예를 안으며 지역영화의 주목할 만한 사례로 화제를 모았다. 제작 과정에서 부족한 제작비로 인해 작업 중단 위기에까지 처할 뻔했으나, 도민들의 후원을 통해 가스로 영화를 완성시킬 수 있었다. 내년 3~4월 제주에서 개봉될 예정이며, 전국 개봉까지 달성될 수 있도록 개봉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있다. 영화 제목 ‘지슬’은 제주도 방언으로 ‘감자’를 뜻한다.

군부독재 시절 자행되던 고문의 과정을 생생히 다룬 정지영 감독의 영화 ‘남영동 1985’는 지난 22일 전국 첫 개봉했다. 이 영화는 민주화 운동의 대부로 불리는 고 김근태 의원의 자전적 수기 ‘남영동’을 바탕으로 극화한 작품이다. 군부독재에 맞서 민주화 운동에 앞장서던 김근태 의원은 남영동 지안본부 대공본실로 끌려가 무려 22일동안 폭행, 물고문, 전기고문을 당했으며, 고문 후유증으로 인한 파킨슨병으로 지난해 12월 작고했다. 두 영화는 그려내는 방법에 있어 차이가 있을 지언정, 공통적으로 시대와 역사로부터 민중이 겪은 비극을 민중의 시선으로 조명하고 있다.

상황적 아이러니 통해 부조리와 비극성 강조

영화 ‘지슬’은 신위·신묘·음복·소지의 4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모두 제사와 관련된 용어들이다. 영화는 당시의 참상을 사실적으로 보여주기 보다는 하나의 제의로 묘사해, 장면마다 4·3 명령들을 달래고 위무하는 진혼굿을 연상케 한다. 흑백의 영상미 역시 환상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데 일조한다. 비극을 내재화시키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승화시키고 극복하려는 차원에까지 이르는 것이다. 다시 말해 분노만을 남기고 끝내

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무언가를 더 깊이 생각하게끔 여지를 남기고 있다. 학살 장면을 자극적으로 묘사하지 않은 만큼, 영화 안에서 느껴지는 비극성은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장면 자체보다는 상징적인 상황 설정을 통해 더 잘 드러난다. 영문도 모른 채 무작정 죽어야 했던 군인들과, 죽어야 할 이유가 없기에 시종 일관 낙관적이고 무지하던 주민들의 모습을 통해 상황이 갖고 있는 아이러니를 강조하고, 그 본질적인 부조리와 비극성을 역설하는 것이다.

주민들이 쓰는 제주도 방언은 매우 사실적이며 거칠고 유쾌하다. 그들은 절박한 상황에서도 그 비극을 인지하지 못하며 극이 진행되는 내내 투박한 사투리로 평범한 대화를 주고받는다. 그들에게 벌어진 현실이란 도대체가 영문조차 알 수 없어 참으로 납득 불가능한 현실이었다. 자신들이 왜 군인들을 피해 동굴 속에 숨어 지내야 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조차 알지 못했다. 그랬기에 그들이 힘들게 숨어 지내며 보여주는 일상적인 모습은 무고한 이들이 이유 없이 죽임을 당해야만 했던 상황의 부조리성을 되려 더 극대화시킨다.

군인들의 행동을 통해서도 부조리한 상황은 더욱 부각된다. 그들은 오직 명령에 따라 폭도가 아닌 사람들을 폭도로 간주하며 무차별적으로 죽여

야 했다. 일부 군인들은 자신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맹목적인 살육 행위에 회의를 느꼈다. 영화는 이렇듯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명하게 나누고 있지도, 가해자를 온전한 악인으로 그리고 있지도 않다. 영화 말미에 동굴 안 주민들과 동굴 밖 군인들이 대치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때 주민들은 군인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매운 고추를 태워 연기를 피운다. 주민들도 울고 군인들도 울지만, 한쪽은 두려움과 공포, 동료를 위한 마음에서 나온 눈물이고, 다른 한쪽은 독한 연기로 인한 생리적 눈물이었다. 같은 상황 속에서 똑같이 울었어도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닌 두 눈물. 곧 시대의 아이러니인 것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고문 장면… 진한 감정적 연대

반면 영화 ‘남영동 1985’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관객들에게 철저히 사실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주력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고문하는 장면이 극을 이끌어 가는 것이다. 수많은 고문 방법이 제시되고 그 모습은 적나라하고 생생하게 보여진다. 보는 내내 불편하기 짝이 없고, 때때로 고개를 돌리고 싶기까지 하다. 그러나 그만큼 영화가 주는 힘은 강력하다. 민주화 운동가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을 영화는 아주 직설적인 화법으로 관객들에게 전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진한 감정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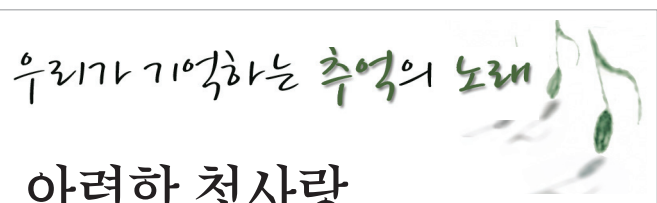
연대를 안겨주기 때문이다.

고문이 보여주는 무시무시한 시각적, 청각적 힘은 너무 큰 고통에 어쩔 수 없이 거짓을 고해야 했던, 악인들 앞에서 개처럼 길 수밖에 없었던 상황의 부조리함까지 온전히 납득시킬 만큼의 관통력을 지닌다. ‘지슬’이 상황적 아이러니를 통해 간접적으로 비극을 전달한 것과 달리, ‘남영동 1985’는 상황 그 자체를 직접적으로 극대화시켜 보여줌으로써 관객들로 하여금 당시의 비극성을 자신이 직접 고문을 당하는 것 마냥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윤리성 상실, 또 다른 시대적 아픔의 산실

‘지슬’에서의 가해자 임장인 군인들은 단결해야 할 하나의 그룹이지만 그 안에 여러 양상이 나뉘져 모두를 싸잡아 악인이라 칭하기에 무리가 없다. 반면 ‘남영동 1985’의 가해자들은 거의 모두를 악인으로 봐도 무방하다. 주목할 점은 ‘남영동 1985’ 속 악인들의 모습이다. 우선 이두한(이경영 역)이 극중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그 이상 악해 보일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한 악마이다. 다른 가해자들 또한 주인공에게 고문을 가할 때 그렇게 잔인하고 냉철할 수가 없다. 그러다가도 그들의 일상적 모습, 이를테면 야구중계를 듣거나 여자친구 얘기를 하는 등의 장면이 번번이 등장한다. 그들이 자행하는 고문 행위와 평소의 일상적인 생활상은 서로 대비되면서 그로테스크한 광경을 연출한다. 그것은 이념을 앞세워 집단적으로 악행을 저지르면서 악에 대한 감각을 잃어가는 사회적 자아의 한 단면을 반영한다. 이들 악인은 일상에서는 보통의 사람과 조금도 다르지 않지만, 군부독재라는 거대한 사회적 테두리 내에서는, 그 안에서 세뇌된 이념 안에서는 모두가 한마음으로 악마가 된다. 그러면서도 그것에 대한 죄의식을 조금도 느끼지 못하고 무뎌져 간다. 이는 군부독재라는 시대가 낳은 또 다른 사회적 병폐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폭 육체적으로 아프다고만 해서 아픈 게 아니다. 기본적인 윤리조차 잊어버리고 그것을 잘못이라 인식하지 않는 모습 역시 시대와 역사가 남긴 또 하나의 아픔의 산실이다. 당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과거를 알고 기억한다는 것은 다소 쓸데없는 일로 비춰질지 모르나. 그러나 실은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 밑바탕에는 반드시 과거가 존재하며, 과거 없이는 현재 또한 없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하며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는 데에는 과거 민중들의 수많은 ‘아픔’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김소영 기자



아련한 첫사랑 세월 가면 잊혀지려나



최호섭 정규 1집 타이틀곡
「세월이 가면」

김민혁(국어국문 1)씨에게 노래 ‘세월이 가면’은 유난히 각별하고 애뜻하게 기억되는 노래이다.

‘세월이 가면’은 1988년 발매된 가수 최호섭의 정규 1집 앨범 ‘세월이 가면’에 수록된 곡으로, 오래도록 대중의 사랑을 받아오고 있으며 여러 가수들로부터 무수히 리메이크돼 오고 있다.

“이 노래를 처음 접한 게 언제인지 뚜렷이 기억은 나지 않아요. 하지만 이 노래를 들으면서 저는 이 노래가 주는 쓸쓸한 감정과 호소력 짙은 멜로디가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제 애창곡으로 삼아 자주 듣고 부르곤 했죠.”

그가 이 노래에 특히 더 각별함을 갖고 있는 이유는 고등학교 3학년 때 헤어진 여자친구와의 잊지 못할 추억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민혁씨는 고등학교 때까지 제주도가 아닌 육지에서 살았다. 그 당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사귀어온 여자친구가 있었다. 그러다가 수능이 끝나고 난 뒤 헤어지게 됐다.

“그때 저는 여전히 그 친구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별한 뒤 영영 얼굴 보기 싫더라. 그러운 사이로 남을 바야직 구로라도 계속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었죠. 그래서 친구로서 그 관계를 지속했어요.”

민혁씨가 제주도로 내려오면서 그러한 관계도 끝을 맺었다. 민혁씨는 마지막으로 그 친구와 기차를 타고 경남 진주에 있는 수목원에 놀러갔던 때를 회상했다.

“그때가 그 친구와의 마지막 만남이었어요. 저는 헤어지기 아쉬운 마음에 어찌할 바를 모르던 중, 문득 이 ‘세월이 가면’ 노래가 생각이 났어요. 저는 그 장소에서 이 노래를 그 친구에게 불러줬어요.” 민혁씨는 그때의 기억을 떠올릴 때면 아직도 기분이 묘하다고 한다. 이제는 그의 마음 속에 애뜻한 추억으로 자리하고 있는 그날의 기억과 울려 퍼지던 노랫소리, 경청하던 친구의 모습. 우연히 이 노래를 듣게 되면 그는 그날의 기억부터 자연히 떠오르게 된다.

“이제는 그 친구와의 연락이 뜸해졌지만 그때의 추억과 그 추억을 간직하고 있는 노래만은 아직도 저의 가슴 한 부분에 깊게 자리하고 있어요. 노랫말처럼, 그건 아마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을 것 같아요.”

김소영 기자

2013학년도 제1학기 제주대학교 교수초빙 공고

1. 초빙분야 및 인원

대학(원)	학과(부)	전공	인원	채용분야	비고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1	영어통사론	
해양과학대학	지구해양학과		1	기상학	
자연과학대학	생물학과		1	식물생태학	
	식품영양학과		1	임상영양학	
공과대학	건축학부	건축공학전공	1	건축실무 및 시공(산학협력중점교수)	
간호대학	간호학과		1	성인간호학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1	상담심리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1	법조실무	여성교수
			1	형법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기금교수)		1	내과학(심장학)	
			2	내과학(소화기위장관)	
			1	소아청소년과학(호흡기-알레르기)	
			1	영상의학(중재기술)	
계			14	13분야	

2. 지원 자격

※ 공통 및 분야별 지원 자격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공통 지원 자격

- 1) 교육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2)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제주대학교 교수자격기준 준연구실적 환산을 산출 기준」에 의거 교수초빙지원서 마감일 현재 교육·연구경력 이 4년 이상인 자.

나. 분야별 지원 자격

- 1) 영어통사론분야, 상담심리분야, 형법분야
-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최근 3년(2009. 12. 1. ~지원서 접수일) 이내에 지원자가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인 논문 2편 이상을 국제저명, 국제전문 또는 국내저명학술지에 발표한 자.

2) 기상학분야, 식물생태학분야, 임상영양학분야

-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최근 3년(2009. 12. 1. ~지원서 접수일) 이내에 지원자가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인 논문 2편 이상을 국제저명학술지에 발표한 자.

3) 성인간호학 분야

-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최근 3년(2009. 12. 1. ~지원서 접수일) 이내에 지원자가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인 논문 2편 이상을 국제저명, 국제전문 또는 국내저명학술지에 발표한 자.
- 임상실무 경력 이 2년 이상인 자.

4) 법조실무분야(여성)

-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국내변호사 자격 소지자로서 법조실무 경력이 임용예정일(2013년 3월 1일) 기준 5년 이상인 자.

5) 건축실무 및 시공 분야(산학협력중점교수)

- 해당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아래의 산업체 근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 산업체 경력 인정기준

- ▶다음의 민간 산업체에서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와 관련 직무에 종사한 경력
- 건설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이 확인한 업체
-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시설 및 군경력 포함)에서 당해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국영기업체 또는 공공단체)에서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 6) 내과학(심장학, 소화기위장관) 분야, 소아청소년과학(호흡기-알레르기)
- 해당분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 해당 전공분야 지도전문의 자격이 있거나 전임의 경력 1년 이상인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
- 최근 3년(2009. 12. 1. ~지원서 접수일) 이내에 지원자가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인 논문 2편 이상을 국제저명, 국제전문 또는 국내저명학술지에 발표한 자.

7) 영상의학과학(중재기술) 분야

- 해당분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 해당 전공분야 지도전문의 자격이 있거나 전임의 경력 2년 이상인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
- 최근 3년(2009. 12. 1. ~지원서 접수일) 이내에 지원자가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인 논문 2편 이상을 국제저명, 국제전문 또는 국내저명학술지에 발표한 자.

다. 분야별 우대사항

- 1) 성인간호학 분야
- 시뮬레이션교육 혹은 시뮬레이션센터 운영 경험 우대.

3. 임용조건 등

2013. 3. 1. 자 교육공무원으로 임용 예정이며, 임용직명, 임용기간, 임용조건 등은 관계법령 및 본교 인사 관련규정에 의한. 단, 기금교수는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제주대학교병원) 비전임교원으로 임용 예정이며, 임용직명, 임용기간, 임용조건 등은 관계법령 및 본교 인사 관련규정에 의한.

* 국립대학 교원은 2011년부터 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하여 임용됨

4. 심사기준 및 절차 : 본교 전임교원신규채용전형지침에 의한.

5. 제출서류

- 가. 채용분야 공통
1) 제주대학교 교수초빙 지원서(불임서식) 1부.
- 2) 학력 및 성적증명서(학사, 석사, 박사) 원본 및 학위취 사본 각 1부.
- 3) 외국의 박사학위 소지자는 한국연구재단의 박사학위 신고발증 반드시 첨부.
- 4) 경력증명서(교수초빙 지원서에 기재한 모든 경력) 원본 각 1부.
- 5) 연구실적물 목록, 연구실적물 공동발표자 목록 각 1부.
- 6) 석·박사학위 논문 및 심사용 연구실적물 각 1부.
논문을 게재일자, 권(권), 게재호, 페이지가 부여되어 출판된 학술지만을 인정함.

나. 채용분야별 제출서류

- 1) 성인간호학분야
- 임상 실무경력 증명서 원본 1부.
- 시뮬레이션센터 운영 등의 관련 경력 증명서 원본 1부.
- 2) 건축실무 및 시공 분야(산학협력중점교수)
- 산업체 경력증명서(근무부서와 직책이 명시되어야 함) 원본 1부.
- 최근 5년내 산학협력 실적물(특허등록 사본 및 연구개발과제 계약서 사본) 각 1부
- 자기소개서 및 향후 산학협력 계획서(자유서식으로 A4용지 3매이내) 각 1부
- 3) 법조실무분야
- 변호사 자격증 사본 1부.
- 법조실무 경력증명서 1부.
- 4) 내과학(심장학, 소화기위장관) 분야, 소아청소년과학(호흡기-알레르기) 분야, 영상의학과학(중재기술) 분야
- 전문의 자격증 사본 1부.
- 지도전문의 자격증 사본, 전임의 경력증명서 원본 중 1부.
- 5) 기타 교수 초빙공고에서 제출토록 하는 사항

6. 지원서(서류포함) 접수

가. 접수기간 : 2012. 11. 29. (목) ~ 12. 3. (월),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공휴일 제외)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오후 6시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나. 접수처 : 제주대학교 교무처 교무과

7. 기타사항(제주대학교 홈페이지 교수초빙공고 참조)

2012. 11. 5.

제 주 대 학 교 총 장

http://www.jejuu.ac.kr

690-75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